

창원의회소식

열린마당

Winter/2021

Vol.34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 통권 제34호

발행인 | 창원시의회 의장

발행처 | 창원시의회 사무국

제작부서 | 창원시의회 의회홍보담당

발행일 | 2021년 1월

주소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전화 | T.055)225-5334



CONTENTS

04 인사말

06 의원현황

12 의정활동

12 주요안건 처리현황

23 5분 자유발언

35 시정질문 및 답변

40 건의안·결의안

46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52 의원동정

52 비례대표 의원포커스

57 의원연구단체 활동

58 포토·뉴스광장

64 의원칼럼·기고

86 2021년도 회기 운영계획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은 복되고 길한 기운이 물씬 일어나는 흰 소띠의 해라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웃음과 따뜻한 배려로 서로에게 힘을 주며 극복해 나가는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에는 꿈꿨던 얼어붙은 우리의 일상과 경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원시의회는 시민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경제회복을 위해 멈추지 않고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미래전략 산업 육성과 제조업 혁신으로 신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어 창원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위기를 변화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우리 시의 행정수요와 규모에 걸맞은 특례사항들이 반영된 관계법령이 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은 통합 창원시가 10년동안 축적한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어 한층더 성장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운 사상이 단숨에 좋아지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은 더 나은 삶을 약속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모두의 노력이 더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창원시의회 의장 이 치 우



의장단



의 장
이치우
국민의힘
창원더선거구
(웅천, 웅동1,2동)



부 의 장
노 창 섭
정의당
창원마선거구
(상남, 사파동)



의회운영위원장
조 영 명
국민의힘
창원파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기획행정위원장
백 태 현
국민의힘
창원가선거구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경제복지여성위원장
문 순 규
더불어민주당
창원파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문화환경도시위원장
박 춘 덕
국민의힘
창원너선거구
(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건설해양농림위원장
이 천 수
국민의힘
창원사선거구
(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영명
국민의힘
창원파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부위원장
구점득
국민의힘
창원나선거구
(팔룡, 명곡동)



김상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상현
더불어민주당
창원하선거구
(종무, 여좌동)



심영석
더불어민주당
창원더선거구
(웅천, 웅동1,2동)



이종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헌순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길상
국민의힘
창원아선거구
(현, 가포, 월영, 문화, 반월중앙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 태 현
국민의힘
창원가선거구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부위원장
김 상 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 창 섭
더불어민주당
창원다선거구
(봉림, 용지동)



김 순 식
국민의힘
창원차선거구
(교방, 합포, 산호동)



김 종 대
더불어민주당
창원타선거구
(회원1,2, 석전, 회성, 함성1동)



박 남 용
국민의힘
창원바선거구
(가음정, 성주동)



박 성 원
더불어민주당
창원자선거구
(완월, 자산, 오동동)



이 우 완
더불어민주당
창원카선거구
(내서읍)



정 순 욱
더불어민주당
창원거선거구
(태백, 경화, 병암, 석동)



조 영 명
국민의힘
창원파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
문 순 규
더불어민주당
창원파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부위원장
이 현 순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 경 희
더불어민주당
창원라선거구
(반송, 중앙, 웅남동)



김 상 현
더불어민주당
창원하선거구
(충무, 여좌동)



김 인 길
국민의힘
창원거선거구
(태백, 경화, 병암, 석동)



박 선 애
국민의힘
비례대표



임 해 진
국민의힘
창원타선거구
(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



전 병 호
국민의힘
창원자선거구
(완월, 자산, 오동동)



최 영 희
정의당
비례대표



최 은 하
더불어민주당
창원가선거구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최 희 정
무소속
창원차선거구
(교방, 합포, 산호동)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박 춘 덕
국민의힘
창원너선거구
(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부위원장
정 길 상
국민의힘
창원아선거구
(현, 가포, 월영, 문화, 반월중앙동)



김 우 겐
더불어민주당
창원나선거구
(팔룡, 명곡동)



노 창 섭
정의당
창원마선거구
(상남, 사파동)



박 현 재
국민의힘
창원다선거구
(봉림, 용지동)



이 종 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 찬 호
국민의힘
창원라선거구
(반송, 중앙, 웅남동)



이 해 련
국민의힘
창원하선거구
(충무, 여좌동)



지 상 록
더불어민주당
창원사선거구
(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진 상 락
국민의힘
창원카선거구
(내서읍)



한 은 정
더불어민주당
창원마선거구
(상남, 사파동)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
이 천 수
국민의힘
창원사선거구
(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부위원장
심 영 석
더불어민주당
창원다선거구
(웅천, 웅동1,2동)



구 점 득
국민의힘
창원나선거구
(팔룡, 명곡동)



권 성 현
국민의힘
창원가선거구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김 경 수
국민의힘
창원마선거구
(상남, 사파동)



김 장 하
더불어민주당
창원가선거구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김 태 ung
더불어민주당
창원너선거구
(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백 승 규
더불어민주당
창원바선거구
(가음정, 성주동)



손 태 화
국민의힘
창원파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전 홍 표
더불어민주당
창원아선거구
(현, 가포, 월영, 문화, 반월중앙동)



주 철 우
무소속
창원나선거구
(팔룡, 명곡동)



제99회 임시회 (10. 22. ~ 10. 28.) | 총29건

의결목록

■ 제9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원안가결〉
■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원안가결〉
■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고문번호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원안가결〉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	〈원안가결〉
■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원안가결〉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원안가결〉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원안가결〉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원안가결〉
■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주요안건 처리내용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

이해련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제 출 자 이해련 의원 등 12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까지)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과 수수료 청구 및 납부, 이의신청을 규정함(안 제7조 부터 제9조까지)
-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과 보험·공제 가입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전홍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제 출 자 전홍표 의원 등 16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온실가스배출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여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확대를 통한 창원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및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0조에서 제24조까지)
-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5조)
- 에너지 백서발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6조)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7조)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영희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제 출 자 최영희 의원 등 23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제10조의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을 유지하되, 봉투 판매가격 변동 없이 판매소 이윤 현실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종량제봉투 판매소 판매이윤을 6% → 9% 인상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영희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제 출 자 최영희 의원 등 23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제11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소에 대한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방법을 유지하되, 납부필증 판매가격 변동 없이 판매소 이윤 현실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음식물 종량제 부과 규정 개정(안 제9조제1항)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소 판매이윤을 6% → 9% 인상



창원시 이스포츠 (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김우겸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제 출 자 김우겸 의원 등 25명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이스포츠 시설 및 이스포츠활성지원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창원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김우겸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제 출 자 김우겸 의원 등 25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게임산업의 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게임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게임산업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이우완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제 출 자 이우완 의원 등 22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창원시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창원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시민 및 공공기관 구성원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공공기관의 명칭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7조)
- 공공행사의 한글 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9조)
- 국어책임관의 실질적 역할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추가(안 제10조)
- 국어사용 등의 실태 파악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국어진흥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영석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제 출 자 심영석 의원 등 21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 소재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매장문화재 관련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참관조사비 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참관조사비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전홍표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제 출 자 전홍표 의원 등 19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시민에게 유익한 혜택을 주는 가로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효율적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시의 주요 가로수 수종 선정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9조)
- 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4조)
- 가로수 보호·관리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
- 메위심기 및 바깥심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김인길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제 출 자 김인길 의원 등 10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물품 비용 및 민간 해양구조대원의 조난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경비 등 실질적인 지원범위 확대로 지원을 강화하고, 협력체계 구축으로 민간 수난구호를 활성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 민간 해양구조대원의 용어 정의(안 제2조)
- 수난구호 참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 지원경비 지급기준 변경(안 제6조)
 - 수난구호 활동에 직접 사용된 장비·물품 비용
 - 시 관내 수상에서 민간 해양구조대원의 수난구호 출동에 따른 경비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경비
-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제100회 임시회 (11. 25. ~ 12. 18.) | 총54건

의결목록

■ 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원안가결〉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원안가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원안가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원안가결〉
■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정상화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원안가결〉
■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가결〉
■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립 곰두리 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마산보건소)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가결〉
■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 창원시의회 기후위기대응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진해해양공원 「짚트랙」사업시행협약 동의(안)	〈원안가결〉
■ 진해해양공원 「짚트랙」사업시행협약 변경동의(안)	〈원안가결〉
■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 주요안건 처리내용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전홍표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제 출 자 전홍표 의원 등 19명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창원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2조)
- 토론회의 기능 및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진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및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 필요한 경비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

최영희 의원 등
29명 의원 발의

제 출 자 최영희 의원 등 29명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창원시 산하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금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 임금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조례의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와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규정과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 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권성현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제 출 자 권성현 의원 등 24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실시에 따라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 자녀까지 포함하고 구체적인 선발기준 마련으로 이·통장의 사기진작 및 이·통장 자녀의 학업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변경(안 제1조)
- 이·통장 자녀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고등학생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으로 변경(안 제2조)
- 장학금액을 매 학기 고등학생은 70만원, 대학생은 80만원으로 변경(안 제6조)



창원시 건강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조영명 의원 등
27명 의원 발의

제 출 자 조영명 의원 등 27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지나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강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시장을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제3조)
-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시민의 참여 등 평가 및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박남용 의원 등 15
명 의원 발의

제 출 자 박남용 의원 등 15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시장을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제3조)
-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구성,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제10조)
-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 안 제15조)
- 비용의 보조 및 징수,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 안 제18조)
- 예산·결산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최영희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제 출 자 최영희 의원 등 25명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최저생활 보장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실태파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제7조)
-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안 제13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상현 의원 등
12명 발의

제 출 자 김상현 의원 등 12명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경로당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원에 따른 지도·점검 조항을 신설하여 경로당의 건전한 운영 및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경로당 지원범위를 추가함(안 제3조)
- 경로당의 재정 여건과 노인복지 서비스의 수요를 고려한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
- 프로그램 개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의2)
- 공동작업장 운영 등 수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의3)
- 경로당 운영 실태의 지도·점검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및 제8조)



창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제 출 자 전홍표 의원 등 17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양육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지원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창원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

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제 출 자 전홍표 의원 등 17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매년 많은 수의 새들이 투명창에 충돌하여 부상·폐사하고 있어 조류 충돌 문제에 대한 개선 및 보호 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야생조류 충돌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야생조류가 투명구조물 충돌로 입는 피해를 줄이고자 함.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및 저감대책의 실시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남용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제 출 자 박남용 의원 등 11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아이스팩 등 일회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줄이고, 제품 등의 순환적 재이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5조)
 -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 사업자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재활용촉진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개인, 단체에 대한 지원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종화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제 출 자 이종화 의원 등 19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해설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해설사의 선발 및 운영지원, 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 해설사 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배치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사항,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현재 의원 등
42명 의원 발의

제 출 자 박현재 의원 등 42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전세계약 임차인 보호 대책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임차인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한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변경에 대한 사항(안 제2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자 변경에 대한 사항(안 제3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시기 등에 대한 사항(안 제5호)

제9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020. 10. 22.(목)

필수노동자 지원과 성평등임금공시제로
모두의 친화도시 창원을!

최영희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아직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히 정립되진 않았지만 시간제·비정규직 지원 업무자, 마트노동자, 배달노동자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유지를 위한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 노동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최근 방역 노동자의 돌연사, 쿠팡 물류센터 감염 확산, 라면 형제 아동방임으로 동생 사망, 사회적 고립과 아사로 숨진 22살 딸과 엄마 등 일련의 안타까운 뉴스는, 돌봄 분야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없이 투입돼 활동 위축과 긴급대응이 늦어진 데 따른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의 결과라 하겠다. 이에 창원시는 버스기사, 경비노동자, 장애인 활동지원사, 단기계약 보육교사, 방문 요양보호사, 청소노동자, 택배노동자 등 우리의 일상 유지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와 함께 고용보장, 휴일급여 지급, 주택 임대지원, 자녀 돌봄과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중소 사업장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확대 등의 지원과 처우를 개선하고, 실태조사와 지원 조례 제정 등 종합개선책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아동·여성·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모든 주체가 평등한 친화도시 창원을 만들려면 동일 직무·동일 직급, 같은 근무기간 내 공정임금 실현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와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박성원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창동 빛의 거리 조성과 파크 골프장
설치에 대한 제언

창동 상상길은 폭 4m, 길이 155m, 사업비 21억 중 한국관광공사 20억, 시비 1억이 투입돼 2015년에 개통됐지만 최근 빛의 거리 조성으로 상상길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간 상상길이 훼손되지 않게 빛거리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벌집처럼 훼손된 상상길을 하루속히 깨끗하고 안전한 상상길로 조성해 도로명에 오명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마산지역의 파크 골프장 설치에 대한 제언이다. 파크 골프장의 연령층과 이동 거리를 감안하면 마산지역에는 최소 3곳 이상의 18홀 파크 골프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노령인구가 가장 많은 마산 지역에는 시에서 조성한 파크 골프장이 없고, 사설 동호인들이 만든 열악한 호계구장이 있을 뿐이다. 그곳에 파크 골프협회에 등록된 마산지역민 수백 명이 이용하고 있다. 창원시는 월영동 청량산 일대, 구산·삼진면 지역, 마산회원구 앵지밭골,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등에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창원시 인구정책·주택정책·일자리정책 합동TF팀 구성을 촉구하며 ”



손 태 화 의 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창원시가 통합된 지 10년이 지났다. 전국 자율통합시 1호로, 2010년 7월 1일 통합 당시 인구는 108만 1,499명이었고, 이듬해인 2011년 말 109만 1,88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기준 103만 8,101명으로 최근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인구정책과 주택정책의 부재,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로 창원 경제여건이 어려워졌다. 20~30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창원시를 떠나는 등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창원시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수는 해마다 줄고 사망자수는 증가하고 있어, 2020년 현재 출생자와 사망자 대비 자연증가 인구가 50명 감소돼 자연 증가에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창원시는 2018년 9월 창원형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다. 2년이 훌쩍 지났지만 인구정책은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이제 창원시는 기존의 인구정책을 대폭 수정해 더 이상 줄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구정책, 주택정책, 일자리정책 합동TF팀을 구성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제9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2020. 10. 28.(수)



전 홍 표 의 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 코로나 시대, 창원시는 도시의 오아시스 ‘공원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도시의 공원으로 향하고 있다. 야외 공간이라 감염 위험률이 낮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 공원 이용률이 증가한 것이다. 공원은 도심의 오아시스로 자리매김 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공원의 사회적 편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므로, 창원시의 공원 정책은 1인당 공원 면적같은 공급자 위주의 지표를 지양하고, 공원의 질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지표로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야 한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원 접근성 증진을 위해 경사로가 낮은 산책로를 조성하거나 기존 경사로를 낮추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원의 입구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 저녁 시간대 이용자를 위해 CCTV 설치, 순찰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편의시설과 화장실, 식수대 설치 등 관리 시설 여건을 개선하는 등 공원의 물리적·사회적·심리적 불평등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성이 있는 공원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외곽 지역에 조성하라



진상락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372억원이 투입되어 약 360여 대의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회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많았지만 입지 선정부터 토지 소유주 당사자들끼리 논쟁만하다가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화물차고지가 조성되면 출·퇴근 시간과 주말, 휴일에는 중리역에서 구슬골, 중리역에서 내서IC 마산대학까지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창원시는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보류하고 다시 주민 여론을 수렴해 대다수가 원하는 장소로 공영차고지 부지를 변경하여 미래의 내서 발전과 올바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목적을 보면 사람중심 안전도시 조성이라는 창원시의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은 행정이라 판단된다. 진정으로 내서읍민들을 생각하고 사람중심 행정을 펼치고자 한다면 내서읍 관내 다른 대체 부지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우완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내서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에 대한 제안

내서읍은 창원시의 서쪽 관문으로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이다. 내서나들목을 통해 구마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고, 함안과 마산을 잇는 함마대로가 동서로 뻗어 있으며 내서읍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경남대로가 북쪽으로는 대구까지 잇달아 있고, 남쪽으로는 통영과 거제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이처럼 간선도로망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내서읍에 시외버스 정류소를 설치해서 서부 경남으로 가는 시외버스 중 출·퇴근 시간 10여 편과 낮시간 10여 편만이라도

내서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창원시의 시설물로 주식회사 동양고속이 위탁관리 하고 있는 내서고속버스터미널을 시외버스 정류소로 함께 사용하는 방안과, 동신아파트 앞 함마대로 변에 시외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즉, 마산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한 시외버스가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을 통해 내서를 경유하는 노선이 채택된다면 내서고속버스터미널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시외버스가 석전사거리와 회성동을 거쳐 함마대로를 타고 내서를 경유하는 노선이 채택된다면 동신아파트 앞 대로변에 인도 쪽으로 들어가게 정류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내서 시외버스 정류소가 하루속히 설치되어 내서읍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창원시가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

국가사업 ‘그린 스마트 스쿨’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그린 스마트 스쿨이란 노후학교를 디지털과 친환경 기반 첨단학교로 전환하고 언제 어디서든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의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총사업비 18조 5,000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에 따른 교육 불균형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신종 감염병의 위험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첫째,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온라인 교과서 기반 수업이 원활하도록 교육 통합 플랫폼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친환경 제로에너지 학교를 만들어 학생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 셋째, 학생 중심의 창의적 교육공간으로 공간혁신과 타인과의 협업능력을 키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창원시를 주도적인 그린 환경의 교육도시로 성장시키는 것은 지역의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의 하나다. 미래의 다양한 환경에 대비하고 언택트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그린 스마트 스쿨 도입에 창원시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나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



이 종 화 의 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한 은 정 의 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단정 배중세 지사 순국기념비 소재 상남공원을 단정공원으로 명명 제언

”

단정 배중세 애국지사 순국기념비와 연보석이 있는 상남공원을 단정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제언이다. 단정 배중세 지사는 1895년 창원군 상남면 토월리에 서 태어나 1944년 일제의 감옥에서 조국광복을 불과 1년 앞두고 옥사했다. 지사는 기울어진 국운을 바로 세우고자 독립사상 고취와 계몽운동을 전개하는 등 민족교육사업에 투신했다. 또한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상남면과 진전면에서 독립만세운동 선봉장으로 활약했다. 그해 5월 중국 만주 길림성으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벌였으며

비밀결사단체 의열단을 조직해 국내에서 무장투쟁을 이끌었다. 정부는 단정 배중세 애국지사의 공훈을 기리고자 1963년 대통령 표창,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했다. 이에 우리 지역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단정 배중세 애국지사의 호를 반영하여 ‘상남공원’을 ‘단정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현재의 특색 없이 관성적으로 지역명을 따다붙인 이름보다 무언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물이나 사건을 따 명명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맞고 창원시의 위상과 정체성을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창원경륜공단의 철저한 자구책을 담보로 재도약을 기대한다



박남용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창원경륜공단은 2000년 9월 1일, 가족 단위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지방 체육진흥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경남도와 공동 출자로 설립돼 올해로 창립 20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레저세 등 1조에 가까운 세수 증대와 유도, 사격, 볼링과 같은 비인기 종목 실업팀을 창단했으며, 우수 지방공기업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강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지속적인 매출 하락과 코로나19로 지금까지 현장 경륜을 시행할 수 없게 되면서 대규모 경영적자를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인건비 절감, 사명 변경과 함께 스포츠·레저 관련 시설을 수탁 운영하는 등 경륜공단 사업을 다각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부결됐다.

조례 개정으로 사업을 다각화 할 수 있는 장을 경륜공단에 마련해 준다면 강제적인 인적 구조조정 없이 경영위기를 헤쳐나갈 계기가 될 것이다. 경륜공단 역시 그동안 방만한 경영과 성과급 잔치로 일관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경영정상화가 될 때까지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직원의 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등 노·사가 한뜻으로 뭉쳐 진정성을 담은 자구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김우겸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전국 최고의 이스포츠 도시로 부상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창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과 창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제 이스포츠 산업 규모는 2018년 매출 119조 1,000억 원, 수출 95억 5,000만 달러, 고용 65만 4,000명에 달하며 한국은 전체 산업 규모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스포츠 및 게임산업과 관련해 단일화된 업무체계가 필요하다. 지난 6월 제1회 창원시장배 이스포츠 대회에 1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은 고무적이나 대회상금 부족과 부대행사 확충, 유명 스트리머 섭외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지난주부터 열리고 있는 2020년 창원시 이스포츠 아카데미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서 향후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스포츠는 단순히 게임을 뛰어넘어 학생들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스포츠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학도 도모할 수 있다. 프로그래머, 게임프로그래머, 게임해설가, 게임 BJ 등 4차산업에 걸맞은 직업군을 배출해 낼 수 있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개선점을 찾아 나가 더 나은 이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제10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020. 11. 25.(수)

서마산IC 선형개선 방법 제안



손 태 화 의 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남해고속도로에는 창원시의 나들목이 4곳이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문제점이 많다. 특히 서마산IC는 부산 방향에서 회성동으로 내리는 곳이 X자로 평면 교차하게 운영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과 차량정체로 민원이 잦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창원 자족형행정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자료에 따르면, 교통영향 검토에서 E등급에서 회성동 자족형행정타운이 완료가 되면 F등급으로 최하의 교통상황이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2019년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개선 비용이 약 1천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교도소 이전사업과 회성동 행정 복합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부산에서 진주방향 서마산IC 진입위치에서 성암로 밑으로 지하 차로를 만들어 마산교도소 정문 앞 회전교차로와 연결하는 개선방향에 창원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요청이 절실하다.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조성이 완료되면 6,200여 세대의 아파트 입주와 행정기관 및 교도소 부지의 국가 기관 유치 등이 예정되므로 서마산IC 진출입로의 선형 개선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창원시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 해 련 의 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창원시 문화콘텐츠 전담부서 신설해야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4개실 6개국 12기관 중 콘텐츠정책국은 영화, 게임산업, 음악, 대중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기반시설 확충, 전문인력 양성, 고부가가치 문화상품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18개 광역·기초 지자체도 콘텐츠 또는 문화산업 담당부서를 운영중으로 전주, 청주, 춘천시에는 문화콘텐츠 전담부서가 있으며 가까운 김해, 진주에서는 최소 담당직원 이상의 업무분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타 도시에 비해 창원시는 전담부서조차 없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문화콘텐츠 산업 규모는 약 2조 달러에 육박하며, 성장률도 4% 전후로 매우 큰 시장이다. 문화콘텐츠산업은 시대가 요구하는 산업이며 창원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이끌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창원시는 문화콘텐츠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민간의 원천기술이 기업의 성패를 가늠하듯이, 영화·영상·게임 등 관련 산업진흥을 위해서는 창원의 고유한 문화적 자산과 인적 자원의 육성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발굴 및 시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차세대 미래 문화도시 창원의 꿈을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

마산구항 방재언덕 서항지구 친수공간 조성



전 병 호 의 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주차장과 마산가고파 국화축제장으로 사용된 넓은 공터였던 마산구항 방재언덕에 대해 2020년 창원시와 해양수산부는 마산항 친수공간 조성·관리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64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0년 1차 준공, 2021년까지 2차 준공 계획으로 환경개선사업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 계획없이 조성된 방재언덕이 창원시로 관리 운영 권한이 이관되기 전에, 창원시는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청소년 공원, 생활 체육공원, 주차장, 해안 야시장, 춤추는 바다 조명 등 처음 계획했던 대로 주민친화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해 지역경제와 생활환경이 어우러지는 곳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이 진행중인 서항지구 친수공간 조성에 창원시와 해양수산부는 긴밀한 협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친수공간 사업부지내 총 303억의 국비, 시·도비로 2024년 완공 예정인 민주주의전당 건립은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아름다운 마산 앞바다와 돌섬, 해양신도시, 어시장 등 관광자원과 어우러진 명품 친수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미래세대에 소중한 자산으로 남겨주기 위해 정치가 아닌 관광의 관점에서 경제가 살아나도록 함께 나가야 한다.



이 종 화 의 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창원형 0세아 전담 어린이집 설립 제안

맞벌이 또는 취업 여성의 0세아 보육문제 해소를 통한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와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해 ‘창원형 0세 영아전담 어린이집’ 설립을 제안한다.

창원시의 노력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지만,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지 못해 직장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꺼리는 예비 엄마도 많다. 현재는 0세아도 영아전담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월령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살핌과, 경력단절 여성의 직장 복귀를 높일 수 있는 0세 영아전

담 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다. 이미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그중 30% 정도를 0세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다. 엄마들도 94.4%가 환경, 안전 위생, 급·간식 측면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창원시가 환경개선 공사와 운영비 지원, 교사역량 강화 등 차별화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면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돕고 출생률을 높이며, 여성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 창원시가 행복한 선진 보육도시가 되길 희망한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인터넷방송(5분 자유발언) 또는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제 그만 해야



구점득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그동안 찬반 논란이 무성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왔다. 이제는 그만하고 이러한 예산과 인력을 생산성 있는 곳에 투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화폐는 대형마트가 아닌 지역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재화이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올해 229개 지자체가 창원의 누비전과 같은 화폐를 연간 9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있다. 최근 누비전을 발행하면 2~3일 이내에 판매가 마감된다. 이를 누비전의 인기와 효과로 보지만 이것은 10% 할인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혜택 때문이며, 이 또한 소비 여력이 되는 일부 시민에게만 치우쳐 세금의 공평한 분배와 사용에 반한다. 한 달에 100만 원을 소비하는 가게가 지역화폐 50만 원을 구입했다고 소비를 150만 원으로 늘렸다고 평가하는 것은 효과를 너무 과장한 것이다. 이제 그만 하자.

따라서 꼭 필요하다면 대규모 재정 투입에 의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니라 수요가 창출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화폐를 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때다.



박남용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산불감시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

지난 10월 22일 의창구 북면에서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을 치르던 71세 어르신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10월 27일에는 경북 군위에서 59세 지원자가, 10월 21일에는 울산광역시에서 60세 지원자가 산불감시원 체력시험 과정에서 사망했다. 산불감시원 응시자격은 나이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지만 응시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으로, 올해 들어 전국 지자체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체력시험 기준이 지난해보다 다소 까다로워졌다. 나이와 상관없는 지원조건이지만 대부분 응시자가 60세 이상임을 감안해 기본적인 체력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휴대폰 활용도를 높이고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숙지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SNS에 활용하는 등 정보화를 기반한 선발방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고른 채용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배수 내 추첨방식도 제안한다. 더 이상 후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험장에 구급차를 대기시키고 체력시험 기준을 완화하며 지원자 모두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등 행정당국의 철저한 준비와 재발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창원의 문화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 홍 표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문화재 보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지역개발, 사유재산권 행사, 문화재 대한 전반적으로 낮은 인식과 취약한 행정력으로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창원시의 ‘창원박물관 건립’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가 최종심의에서 조건부 적정으로 통과되었다. 창원시의 문화와 역사의 우수성을 알리는 공립박물관 설립 추진을 환영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실천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공립박물관 설립의 최우선 과제는 먼저 문화재가 소재한 현장인 창원의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현재 운영 중인 마산박물관, 진해박물관, 창원역사민속관, 성산패총전시관, 웅천도요지전시관, 옛 마산헌병 분견대의 관리 방안(학예사 배치, 전시, 교육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창원의 전통성을 살릴 문화재 관리와 보존 사업에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예산과 박물관이 아무리 많이 준비돼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없다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긴 안목과 전문성으로 문화재를 아끼고 보살피고 개발 이익에 앞서 보존의 이익을 소신껏 주장할 수 있는 창원 유적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정 순 욱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외국인과 공존하는 창원시를 기대하며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역은 활기를 잃어가고, 수요예측을 벗어난 주택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도시의 경쟁력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 기간산업 위주의 창원은 스마트 도시, 전기차가 움직이는 미래형 도시, 신항과 연계하는 도시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이런 변화하는 제조업의 일자리를 채울 외국인도 필요하다. 다문화, 외국인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 그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문제를 고민할 시점이 왔다. 외국인 친화 도시가 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먼 훗날 그들의 자녀가 이 땅에서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고, 사회 역군으로 성장할 때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들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차별을 없애서 동등한 지역사회 일원이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신체적 차이, 정체성 형성과정의 혼란, 문화 적응 스트레스, 낯선 타지에서 부모 역할, 자녀 양육, 가정폭력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창원시의 배려 깊은 지원 정책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야 한다. 세계 속의 한국, 한국의 으뜸 창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외국인 친화 도시, 다문화 친화 도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시점이다.

제10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 2020. 12. 18.(화)

창원시 수어통역센터장 비임금제 개선으로 불평등 해소



박 선 애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창원시에는 수어통역센터가 마산, 창원, 진해에서 운영중이지만, 이들 센터장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수어통역센터 운영 규정 17조 2항에 “센터장 중 자격증 소지자는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수에 의거 보수를 지급하고, 자격증 미소지자는 지역 실정에 맞게 직책보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센터장 자격요건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며 실정에 맞게 직책보조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와 달리, 경남도 소재 센터는 임금 미지급과 직책보조 수당도 자체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2016년 2월 3일 농인과 수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국수화언어법’이 법률로 제정, 시행되면서 농인의 사회 참여와 활동요구가 높아졌지만, 맞춤형 교육, 전담교사와 수어통역사 부족, 인식 부재 등으로 농인정책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때, 창원시는 자체 예산으로 자격을 갖춘 수어통역센터장의 인건비를 지급해 줄 것을 제안한다.



권 성 현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창원시 인구정책 및 신혼부부 지원에 대하여

통합 창원시 인구는 109만에서 매년 줄어들어 10년이 지난 현재는 104만 명이 며, 이제는 100만 명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출입 현황을 보면 일자리 및 주거를 사유로 수도권, 김해, 부산 등으로 인구 유출이 되고 있는 것이 뚜렷이 나타난다.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선 일자리와 주거,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주택 문제는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므로, 우리 시는 주거, 결혼, 출생

과 양육, 보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출생장려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또한, 신혼부부 및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빈집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신혼부부 및 다자녀 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줌으로써 인구 유입과 창원시에 애착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창원시는 출생률과 초중고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결혼과 출생에 직접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기본이며, 사회 전반에 걸쳐 지원책을 모색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결혼·출생 지원정책을 개발해 아이 낳기 좋은 창원시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소사천, 대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심영석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사·대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17년 12월에 시작해 21년 12월에 완공되는 총 사업비 8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률은 60%이다. 소사천과 대장천은 부산항 신항과 연결되는 영길만, 와성만, 안골만으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으로 이 하천의 수질이 주변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하천이다.

이 하천은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인 삿, 구렁이, 기수갈고동, 2급수 이상에서 서식하는 은어, 줄새우, 갈문망둑 등 소중한 동식물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다. 하지만 소사천과 대장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설계함으로써 작은 유량에도 생태하천이 유실되는 문제와, 공사 설계 시 2.1m 이상 깊게 준설함으로써 유속이 가속화되어 소사천 생태하천 구간의 유실과 매몰이 발생했다. 또한 소사·대장천은 어류에 대한 보호대책 없이 공사가 진행돼 어패류의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워졌다. 창원시는 8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인 만큼 생태보전대책 강구와 더 이상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설계를 변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백승규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인구 유출 위기 대책 방안, 청년을 위한 창원시의 변화

창원시의 합계 출산율은 1,009명에 불과해 전국 평균 이하로써 그 원인은 출산 연령대인 청년 인구의 유출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창원에서 김해로 전출한 약 3만 6천 명 중 36%가 30대이다. 1~2시간의 출·퇴근 시간을 감내하면서까지 이주하는 이유는 70%가 주택 문제이다. 창원시 인구 유출 방지의 대안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거주하기 좋은 주택공급' 정책을 제안한다. 창원시민생활체육관과 공영주차장 부지를 주거문화복합공간으로 재개발해, 기존의 공영주차장 기능을

유지 확대하고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기능의 스마트 시대에 맞춤형 만족도 향상과 함께 청년층의 저렴한 임대주택 또는 토지임대분양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창원시민생활체육관은 노후되어 재건축을 통해 쾌적한 생활체육 인프라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고, 공영주차장 부지의 활용도 증대가 필요하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문화, 교육, 상권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공간으로써 청년인구 유입으로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주거문화복합단지 조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인구 유출 방지와 상남동 지역의 경제활성화, 상남상업지구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인터넷방송(5분 자유발언) 또는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과 장애인고용목표제를 실시하고 무료주차장 시책을 전환하라”



최영희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코로나 취약계층 자영업자와 장애인을 위한 시책과 주차장 조성 개선 및 무료주차장의 단계적 유료화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영업자 전국민고용보험 의무 가입 도입을 위해 고용형태, 소득상황을 파악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 장애인 고용 관련,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회원 및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가족을 참여시키는 장애인채용 목표공시제 실시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무료주차장 조성 및 차주 중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개선해야 한다. 공영주차장 686개 중 유료화는 16.9%이고 무료는 627개이다.

단계적으로 50면 이상 대규모 145개소부터, ITS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과 교통 흐름 방해가 없는 곳부터 점진적으로 유료 전환이 필요하며, 주차장 조성 추진 절차는 용역조사 후 절차대로 공청회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공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개선해야 한다. 다양한 민원과 장애인들의 요구, 고령자 주차 칸 확대 등 실제 수요를 파악해 유기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이우완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학교 유휴공간 활용에 창원시가 적극 나서자”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신도시 개발로 구도심의 공동화가 지속되고 구도심의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운동장 가에 새로 지은 별관을 통째로 비워둔 학교도 있다. 이렇게 늘어나는 학교의 유휴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수 있다면, 창원시는 새 건물을 짓는 비용을 절약하면서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내서중학교 별관동은 4층 건물로 모두 28개 교실, 연면적 약 3,600㎡가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활용 방안에 대해 용역사와 학교 관계자, 지역주민, 청소년 등이 참여한 워크숍이 수차례 진행되었다. 사전기획용역 결과 리모델링 비용이 약 47억 원으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리모델링 비용 때문에 고심 중이다. 이 리모델링 비용을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부담하면 창원시가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한다면 이 사업은 빠르게 추진될 것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업해 늘어나는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면 바람직한 모델로의 정착은 물론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가성비 높은 사업이 될 것이다.

제10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 2020. 12. 16.(수)



박성원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노인교통사고 예방대책과 마산합포구 지역내 마을버스 신설

Q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과 마산노인회 주변은 교통 혼잡 지역으로 노인교통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무학초등학교 앞은 제한속도 30km/h이나, 노인복지회관으로 가면 제한속도가 50km/h로 변하여, 카메라가 없는 구간에서 과속운행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노인복지관 앞 구간에 단속카메라 설치 계획은 없는지?

A <안전건설교통국장> 무학초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카메라 설치를 위해 국비를 확보하여 내년초 설치예정이다. 향후 노인복지회관 앞까지 차량 감속 효과가 기대되나, 과속이 빈번한 300m구간에 대한 카메라 추가 설치에 경찰서와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다.

Q 마산합포구는 창원시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고, 문신탄생100주년 거리, 시립박물관, 추산동 벽화마을 지정 등 앞으로 볼거리도 풍부하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지대의 노약자 교통편의를 위하여 성호·추산·자산·완월동 지역에 순환 마을버스가 꼭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안전건설교통국장> 해당지역 주민들의 지속적 건의로 2012년 노선 개편 시 자산동 순환버스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택시 업계 및 이해관계인과의 마찰로 인해 중단된 바 있다. 향후 2022년도 노선 전면 개편 시, 자산동과 어시장 순환 노선 신설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Q 3·15나 4·19 등 국가기념일을 상징하거나, 지역적 특색을 살린 마산 버스 노선 지정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안전건설교통국장> 2022년 노선 전면 개편시 적극 검토하겠다.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

Q 지난 7월 13일 '창원시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추진 상황은?

A <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적인 행사를 추진하고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문신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회와 학술행사 개최를 건의하여 2022년 상반기 개최 예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창원시 간의 협약을 거쳐서 준비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Q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을 기리는 국제문신 조각비엔날레가 마산에서 시작되었다가 창원으로 옮겨지면서 다목적 조각비엔날레가 되었다. 이번 100주년부터는 문신의 예술혼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조각비엔날레로 부활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적으로 공감한다

A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문신 선생의 작품을 집대성하여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을 마산에서 실시할 계획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선생의 고향인 마산에서의 특별전시회 개최를 적극 검토하며, 2022년 창원 문신 조각비엔날레에 전시도 검토하겠다.

Q 기념사업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하여 총체적인 마스터 플랜과 프랑스에 문신 선생의 제자와 가족을 포함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책임 수행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온라인 사전 홍보가 절실한데 앞으로 계획은?

A <문화체육관광국장> 향후 비엔날레 총감독에 준하는 전문 학예 인력을 채용해서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온라인 홍보를 위한 SNS 환경도 구축중에 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기념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10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 2020. 12. 16.(수)



박 선 애 의 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창원시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위한 마산박물관 유물 수장고 승격

- Q** 그동안 창원지역의 가야연구가 소외되어 왔지만 최근 발굴조사의 증가와 축적된 자료로 창원 지역 대상 가야 연구가 활발하다. 가야유적 연구에 관한 향후 계획은?
- A** <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지역 가야사 규명을 위해 현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도계동 유적의 발굴 보고서가 제작중에 있다. 박물관 건립 전 우리 시의회 역사·문화연구회와 협업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가야사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도록 하겠다.
- Q** 창원에서 대규모 가야유적이 발굴돼 찬란한 문화유적 발생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국 보급 보물들을 보관할 국립박물관의 부재로 우리시에서 발굴한 문화재를 타시로 이관 해야 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석동유적지 및 현동 고분군의 유물도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김해박물관으로 이관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A** <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시를 포함한 경남 내 타.시.군의 국가 귀속 유물은 국립김해, 진주박물관으로 이관된다. 창원시의 대표 박물관이 없어 생기는 문제로, 향후 산업·노동·역사 박물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 Q** 다소 시일이 걸리는 국립박물관 건립은 차질없이 추진하되,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마산박물관의 수장고 증축과 학예사 전문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유물수장기관으로 승격시킬 계획은?
- A** <문화체육관광국장> 마산박물관은 2001년 개관하여 시설노후화로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장고 전용뿐 아니라 금속류 유물도 보관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 A** <시장> 우리 지역유물의 지역내 보관은 현재 추진중인 산업·노동·역사박물관이 건립되고 국가 귀속 유물보관 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자연스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위임기관 신설 기준 등 제반요건의 충족 가능성 여부, 중복투자 우려 등 현실적인 요건도 고려해야 한다. 관련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
- Q** 유물수장기관으로 승격을 심사하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기위해 긴밀한 협의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아울러 수장고 확장과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본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않다. 향후 추경 확보 계획은?
- A** <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 편성을 고심해 보겠다.

창원조각비엔날레 정체성 재확립을 통한 향후 방향

- Q** 2년마다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우리시가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실험적 접근은 긍정적이나 조각비엔날레 개최의 본래 목적과 달리 통상적인 조각의 개념을 탈피한 비조각을 주제로 선정하 이유는?
- A** <문화체육관광국장> 비조각은 현대 조각의 양상을 살피고 지난 10년에 이르는 기간을 되돌아 보고 또 자기성찰을 통한 자기 반성의 시도로 제시되었다.
- Q** 10년동안 다섯 번의 행사를 치르는 동안 우리 지역 작가들의 참여율이 저조한데 지역작가 참여율이 최소 20%정도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제2의 문신 육성을 위해서라도 지역작가의 참여기회를 높일 계획은 없는지?
- A** <문화체육관광국장> 작가 섭외는 총감독의 고유권한이다. 국제적인 행사는 해외 작가의 참여 수도 비엔날레의 위상과 평가에 많이 차지한다. 앞으로 역량있는 지역작가들이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창원시립무용단 평정제도 완화 개선 건의

- Q** 시립무용단 상임단원들에 한해서 정기평정은 매년마다, 종합평정은 2년마다 실시한다. 정기평정은 실기평정으로 무용단의 특성 상 평정에 대한 과중한 부담과 연습량, 관절염 등 직업병을 호소하고 있다. 시립무용단의 특성과 애로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실기 평정을 2년마다 실시하고, 3개월마다 실시하는 상시평정을 신설하는 대신 근무평정이나 모니터링 평정으로 대체 완화할 의향은?
- A** <문화체육관광국장> 근무평정은 시립예술단의 의견이 중요하다. 무용단은 81%가 동의했지만, 교향악단과 합창단은 반대해 부결된 상황이다. 추후 단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



손 태 화 의 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봉암공단의 산업단지 지정 및 공업지역 재생 추진

- Q** 지난 35년간 마산과 창원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봉암단지는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지 않아 주무부서가 없이 홀대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A** <제1부시장> 봉암공단은 일반공업지역으로 전략산업과 기업지원담당이 총괄하고 있다. 어떤 기업이든 홀대하지 않고 사각지대가 발견되면 소관부서를 지정해 업무 추진중이다.
- Q** 봉암일반공업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 A** <제1부시장> 노후화된 봉암공단의 재생과 체계적 관리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선결과제로 공공녹지나 도로, 공영주차장, 이런 공공기반시설들의 반영이 필요하며, 공단협의회나 토지 소유주와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
- Q**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봉암 일반공업지역도 공업지역 재생지구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 A** <제1부시장> 현재 일반공업지역으로 유지한 채 개선하는 방안과 공업지역 재생지구로 지정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공업지역으로 두고 사업추진하는 경우 건축행위 허용 한도가 12가지 정도로 다양한 반면 재생사업지구로 변경 되면 공장과 그 부대시설로 한정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재생사업지구가 지정되면 조세나 금융지원,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등 효과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다.

서마산 IC 진출입로 선형 개선

- Q** 현재 서마산 IC는 평면 교차로로 교통사고와 상습정체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울러 창원시 복합행정타운이 조성되고 2024년부터 6,200세대의 순차적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향후 서마산 일대 교차로의 교통상황에 대해 교통 영향평가 결과는?
- A** <도시개발사업소장>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 심의시 교통서비스 수준에 다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Q** 지난 10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제시한 서마산 IC 진출입로 개선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건설도로과와 협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 A** <도시개발사업소장> 의원님께서 제시한 방안에 충분히 공감하며 내년 교통영향평가 시 관련부서와 대안을 마련,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 Q** 전액 국비 사업도 중요하지만 복합행정타운과 6,200세대와 복합기관의 순차적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창원시가 어떤 형태로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아주기 바란다.
- A** <시장> 서마산 IC는 애초 한국도로공사의 잘못이 크므로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하수도 사용 조례 관련

- Q**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 점용료 및 사용료 제1항과 2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 의견은?
- A** <시장> 하수도 배수설비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이 내년 5월까지 완료 계획이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 Q** 시행규칙 제19조 하수도 사용료의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하는데 향후 계획은?
- A** <시장> 지금 시행중인 용역이 완료되면 정확한 감면대상자를 파악하여 감면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겠다.

제10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 2020. 12. 16.(수)



최영희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

- Q** 우리시의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확정형 지원사업 4가지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7가지가 있다. 양질의 일자리도 아니며, 인건비 지급 위주가 아니라 지역 정착형 청년일자리가 되도록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 A** <경제일자리국장>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평가 시 적정성, 중복지원 여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겠다.
- Q** 중복 지원기업중에 대기업 1차밴드, 중견 강소기업들은 지원금 없이도 최저임금 이상을 고용할 여력이 있는 기업인데 지원금을 받고 시급이나 최저임금 매칭하는 것은 저임금 고착화를 시에서 조장하는 우려가 있다. 지원은 하되 협약으로 장기고용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닌지?
- A** <경제일자리국장> 향후 모집할 때에는 사업간 중복지원과 기 지원받은 업체는 후순위로 두어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사업의 원래 취지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고용 가능한 기업이 우선 되도록 노력하겠다.
- Q** 노동부가 시작한 디지털 일자리가 반응이 좋다. 하지만 1년 미만 단기간 일자리는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므로 우리 노력으로 추가연장 가능한지?
- A** <경제일자리국장> 지난 10월부터 행안부 공모에서 선정된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행안부 지침상 사업기간이 1년 이내이다.
- Q** 사업별 중도탈락 원인을 뒤늦게 파악하였는데 관리 감독을 다하였다 볼 수 없으며, 회사폐업, 경영악화, 휴업 사업장의 매칭으로 인한 중도 퇴사가 제법 많아 심사가 부적절해 보인다.
- A** <경제일자리국장> 사업별 중도포기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도 있었으며, 폐업은 3개소, 휴업은 1개소이다.
- Q** 일자리 매칭 개수보다 업체파악이 우선인데 청년들을 위험한 일자리로 밀어넣었다는 현장의견이 있다. 위험한 곳은 자동화 지원사업을 하고, 위험한 업체는 산업안전교육을 기업협약에 넣어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A** <경제일자리국장>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의 업무지만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청년 노동자들의 근무환경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동부와 연계하여 살펴보겠다. 안전교육부분도 유념하여 살피겠다.
- Q** 청년의 정착을 위해 주거비 지원사업이 무엇보다 절실한데 우리시는 월세지원과 창업주택이 있는데 더 늘려야 한다고 본다.
- A** <경제일자리국장> 2024 창원형 청년정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주거비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

청년 정책에 대하여

- Q** 트레시 규모에 맞게 성남, 용인, 고양, 수원시처럼 바쁜 경제국이 아닌 기획실에 청년과를 신설해서 청년종합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의견은?
- A** <제1부시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우선 검토하겠다.
- Q** 우리시는 청년네트워크에 반영된 예산이 없는 점에 놀랐다. 창원에는 경남도에서 가장 많은 20만이 넘는 청년인구가 있는데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민간거버넌스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A** <제1부시장> 민간거버넌스가 없는 것은 아니고,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지만 조금 더 활성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다.
- Q** 우리시가 먼저 지원해야 할 부분은 오랜 기술축적과 조선, 자동차, 기계의 근간인 뿌리업종 등 특별업종들(10인 이하 10억 미만 영세업체)의 도산을 막는 일이다. 고용지표 위기와 공장가동을 저하 등 도산이 우려되는데 대책은?
- A** <제1부시장>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1,300억 원 조성계획에서 2,300억 원 추가하여 총 3,600억 원으로 지원액을 늘렸다. 영세기업 30여 개사에 법률, 노무 등 경영애로부터 기술애로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도 실질적으로 지원되도록 운영하겠다.



노 창 섭 의 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덕동물재생센터 하수처리장 여과 설비 개량사업공법 선정

Q 통합 창원시의 81.9%가 넘는 하수 처리를 담당하는 덕동물재생센터 하수 종말 처리장 2차 확장공사를 2007년 준공하였으나 여과기 성능 하자로 인하여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에 공사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진행상황은?

A **〈제1부시장〉** 우리시는 2010년 9월 사공업체를 상대로 175억원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1심 판결 결과 원고 일부 승소 60%를 배상해 주라는 판결이 났다. 쌍방이 모두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2심 판결에서 1심 유지 판결, 이후 피고측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Q 창원시는 덕동물재생센터 자동 여과 장치가 10년 넘게 고장난 채 방치되면서 부유 물질이 완전히 걸러지지 않고 정화된 하수가 마산 앞바다로 방류되면서 ‘해맑은 마산만’을 위해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고장난 자동 여과 장치를 뜯어내고 ‘덕동물재생센터 여과설비 개량 사업’의 부유물질 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진행 상황은?

A **〈제1부시장〉** 덕동물재생센터 여과설비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그 실시설계 속에 반영돼야 할 부유물질 처리공법을 2020년 7월 선정했다. 이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21년 3월까지 완료된다.

Q 덕동물재생센터 여과설비 개량사업 공법 선정 심의에서 2위로 탈락한 A업체는 1차 기관 평가인 보증 수질, 운영비, 경제성 등 객관성을 평가하는 항목에는 높은 성적을 받고도, 외부 위원이 참가한 공법 심의 위원회 위원 평가에서는 B 업체가 높은 점수를 얻어 1위 업체로 최종 선정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제1부시장〉** 1차 평가는 업체가 제시하는 임의적 수치를 바탕으로 하는 평가이고, 2차 평가는 전문가들이 각 공법의 실현 가능성, 비용대비 효율성을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다.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했으며 고도의 평가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하여 따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Q 지난 7월 8일 여과설비 개량사업 공법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업체를 선정했지만 2위로 탈락한 업체가 공법 심의 위원회 결정에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9월 26일 창원지방법원에 공법 선정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여과기 설비 관련 건은 지난 구)마산시 시절부터 문제가 되어 10년 동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도 전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시설을 해체하고 새로운 공법 선정을 위한 업체선정 마저 또다시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에 이해가 어렵다.

A **〈제1부시장〉** 앞선 소송이 확정되면 신속히 여과기 설치공사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또 다른 소송에 노정되어 안타까운 상황 이다. 공법 선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되었으며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합리적 판단을 해 줄 것으로 생각 한다.

Q 최근 ‘마산만 특별 관리해역’ 및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에 따른 방류수 수질 기준의 강화로 여과기 설치가 시급 하여 여과기 하자 소송이 대법원 판결 후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진행된 여과설비 개량공법 선정이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되면서 장기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창원시의 대책은?

A **〈제1부시장〉** 대법원 판결 후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재원은 손해배상금이나 그에 따른 이자금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진행하겠다.

하수행정 위기에 대한 대책

Q 창원시 하수 처리의 81.9%를 담당하는 덕동물재생센터 하수처리 여과 설비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두 번이나 소송이 제기되는 등 하수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 주고 있다. 시장님의 생각은?

A **〈시장〉** 2개의 사건 모두 재판이 진행중이라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단하여 말씀드리기 어렵다. 하수행정의 효율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0년 7월 조직을 개편했다.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Q 시장님 취임 후 창원시 하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하수도사업소 소장 임기가 6개월을 넘지 않는 인사가 반복되고 있어 하수행정에 난맥상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인사 계획은?

A **〈시장〉** 급변하는 하수행정의 스마트화와 혁신을 위해 전문 직렬을 임용하도록 하겠다.

『양식생물 대량폐사 복구기준 현실화 및 미 입식신고 양식장 복구지원 반영』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 촉구 건의문

2020년 7월말부터 진해만 해역에서 발생한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인해 창원시의 주요생산 수산물인 미더덕류, 홍합, 굴 등 주요 품종에서 피해신고 308건 1,330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발생 규모는 창원시 진해만 해역 미더덕류, 홍합, 굴 양식장 551ha 중 399ha로 피해율 72%에 이르는 유례없는 대규모 피해다.

우리 창원시는 전국적인 코로나19 발생 및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 이번 대규모 어업재해는 어촌 지역경제 위기를 한층 더 심화시켰다.

따라서 이번 진해만에서 발생한 대규모 어업재해 피해신고어장 308건 중 미 입식신고 209건을 포함한 실제 입식 확인된 피해에 대해 별도의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어업인들의 위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홍합, 미더덕류 품종의 복구비가 현실단가에 미치지 못해 많은 어업인들에게 불만사항이 되어 왔으므로 복구비용 산정단가 결정 시 중앙정부는 공개토론회, 공인된 평가기관을 통한 분석으로 현실적인 단가 반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 유도를 하고 있으나 보험기간이 1년이며 품종별 이상조류(빈산소수괴 등)에 대한 보상이 특약담보임에 따라 보험료 부담가중되고 있어 특약을 주계약에 포함하도록 보험규정을 개정하고 가입을 위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 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관련 속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단계별 경보 발령 체계가 없고 어업인들의 정보 부족으로 피해 대처가 되지 않고 있어 해양수산부에서는 적조, 고수온 등과 같이 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에 단계별 경보 등 피해 매뉴얼을 제정 및 제공함으로써 피해예방을 위한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주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진해만 어업재해 발생이 많은 해역에 우선적으로 자동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지원하는 등 피해최소화에 중앙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진해만해역 대규모 어업재해와 어려운 지역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피해 조사 시 어장에 실제 수산생물입식 확인된 피해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라

둘째, 자연재해와 이상조류 등 어업재해 시 실질적 어업인 생계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산분야 복구비 산정단가는 현실단가를 최대한 반영하여 산정하라

셋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중 이상조류에 대해 주계약에 포함되지 않고 특약가입하는 품종에 대해 주계약에 포함되도록 전환하고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라

넷째, 빈산소 수괴등 이상조류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자동관측장비설치 및 경보단계 신설 등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 대책을 마련하라

2020. 10. 22.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의 고리를 끊어 주십시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촉구 건의문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벌써 13명의 택배노동자들이 살인적인 중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로 허망하게 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연이은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은 택배회사들의 탐욕이 불러온 사회적 타살로서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본격화한 지난 2월 이후 월별 택배물동량은 작년 동월 대비 적게는 3,000만개, 많게는 약 8,000만개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물동량 증가는 재해자 증가로 이어져서 작년 12개월의 택배노동자 재해자 수가 180명인데 반해 2020년 1~6월 재해자 수만 12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택배노동자 27명이 산업재해로 숨졌고, 이중 13명이 올해에 사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량이 폭증하고 이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이 살인적인 중노동에 시달려 왔으며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는 “구조적 타살”입니다. 택배노동자들은 주평균 71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그 근본적 원인은 택배회사들이 택배노동자들에게 부여하는 분류작업에 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은 하루 노동시간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분류작업에 투입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동량의 폭증으로 계속해서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회사들은 실효성있는 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과로사에 대한 책임회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27세의故 장덕준님은 건강한 청년이었지만 야간근무 17개월만에 15kg의 체중이 줄어들었고, 36세의故 김동희님은 평소 하루에 200개 내외의 택배물량을 처리했으나 최근 물동량 증가로 하루에 400개가 넘는 택배물량을 배송하는 등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택배노동자들은 죽어서도 산재처리마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신청을 악용하고 있는 택배회사와 이를 방조하고 있는 정부당국의 무책임한 관리감독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신청자는 전체 83%로 약 42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시대, 갈수록 확대되는 택배서비스는 우리사회의 필수노동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택배회사들의 탐욕으로 과로사하는 택배노동자들을 외면해선 안됩니다. 우리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실효성있는 방지대책을 시행하라!

둘째, 정부는 살인적인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는 택배 분류작업에 대한 인력투입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라!

셋째,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산재보험 적용을 실시하라!

넷째,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2020. 10. 28.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

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이때부터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는 현재 123만 톤에 달하며, 지금도 하루 평균 160~170톤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123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안으로 해양방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10월 27일 공식 결정을 앞두고 자국 내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공식 결정을 한 달가량 미뤄두고 있는 상태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 처리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정화작업으로 방사성 물질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 연구 결과조차 나와 있지 않다. 또한,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 수소는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수를 희석하면 오염의 농도는 떨어질지 모르나, 오염물질의 총량은 동일하므로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만약,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해양오염 사태로 이어질 것이며, 해양생태계에 축적된 방사성 물질은 전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다. 특히, 일본과 가장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는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창원시의의회는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일본 정부는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2.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3.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에 강력하게 대응하라.

2020. 11. 25.

창원시의의회 의원 일동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의 조속한 준공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정상화 촉구 결의문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이 2017년 12월 골프장 개장 이후 2차 사업인 휴양문화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수년간 방치되어 지역경제와 도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으며, 그동안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여 관광레저단지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사업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본 사업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2009년 경남개발공사 주관으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주)진해오션리조트를 사업자로 선정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민간사업자에게 30년간 유상으로 토지를 임대하고, 민간사업자는 상부시설 건설 및 운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에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3년동안 경상남도과 경남개발공사가 본 사업구역에 중복으로 추진한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또한 사업 신뢰도 하락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2차 사업부지에 투자 의향을 내비쳤던 국,내외 기업의 이탈로 사업전반에 대한 수익성 악화 사유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요청하게 되었고,

우리 의회는 사업자의 토지사용기간연장 요청에 대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 시행한 용역 결과와 창원시와 사업자간 협의한 2차 휴양문화부지에 대한 2년 이내 개발계획 미신청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도로, 녹지 잔여 사업은 2022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정상화 조건과 사업차질로 발생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토론 결과 2020년 2월, 7년 8개월의 토지사용 기간 연장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토지사용기간 연장 동의 이후 경남개발공사와 (주)진해오션리조트에서는 사업진행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경남개발공사는 현재까지 기간 연장에 대해 사업자와 창원시에 일방적이고 합리성이 결여된 합의서 체결을 강요하고, 이미 2015년 토지분할등기가 완료된 토지에 대한 가치정산 등 황당하고 발목잡기식 부당한 주장만 할 뿐,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업정상화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경남도의 출자기관으로 공공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윤창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공사의 이익만을 몰두한 나머지 진정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창원시 의회는 웅동지구개발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이 사업과 관련되어 장기간 이어온 진해,의창수협 소멸어업인에 대한 생계대책 민원해소와 더불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주)진해오션리조트는 민간 사업자로서 협약절차를 거쳤으므로 당초 협약시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가 깊이 반성하고,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실현가능한 대책 마련과 이 사업에 포함된 소멸어업인의 생계대책 민원이 조속히 해결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경상남도는 사업지연에 대한 문제를 통감하고,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간 사업정상화를 위한 일치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이 빨리 정상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함께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대표기구인 우리 시의회도 사업 정상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020. 12. 11.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창원시의회 기후위기대응 촉구 결의문

자연환경 훼손과 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류는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고통을 겪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하게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는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들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를 촉발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문제는 전 세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 변화입니다. 인류의 존망과도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2019년 9월 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는 "우린 대멸종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로지 돈과 동화 같은 경제 성장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라고 세계 지도자들이 온실 가스 감축을 비롯한 각종 환경 공약을 남발하면서도,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18년 인천 송도 기후변화정부간협약체(IPCC) 총회에서 "기후변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전 세계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유엔총회 회의장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 이행 등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외침은 공허합니다.

2007년 이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는 2014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를 갱신하며, 올해 독일을 제치고 6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날 정치와 행정의 왜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아마도 그레타 툰베리 말처럼 "지금 정치인들은 인기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행동 없이 기후 위기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일 것 입니다.

미국 CBS에서는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 현상은 가뭄, 해수면 상승, 환경 파괴를 초래하고 지구면적의 35%, 전 세계인 구 55%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보도하면서 '핵전쟁 이후, 지구온난화는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인프라, 교통, 식량, 건물, 경제 시스템 모두에 온실 가스 저감 정책과 예산, 인력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시작이 지역 정치와 행정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여 세계 최초로 지난 6월 5일 우리나라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였고, 지구 온도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적극적인 실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자립 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실행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에 기후위기 비상상황과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 하였고, 국회에서도 2020년 9월 24일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국가 차원 기후위기를 선언한 16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도 104만 창원시민을 대표하여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를 보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현 상황을 기후위기 국면으로 판단하여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인 지원과 노력에 힘을 쓸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창원시의회는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홍수, 폭염, 대형산불, 미세먼지 공습 및 바다 쓰레기섬 출현 등 기후 재난의 증가에 대해 심각한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기후변화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원칙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하나, 기후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원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여 책임감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한다.

하나, 창원시의회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편성을 지원하고,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며, 주민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과 기후위기에 대한 연구 및 학습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의회가 솔선수범하여 전 시민운동이 전개되도록 노력한다.

하나, 창원시의회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 구현,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산, 저탄소·친환경적인 산업 정책 등 그린뉴딜의 지역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며 적극 지원한다.

하나, 창원시의회는 집행부와 협력을 통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가스 배출의 억제를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섬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하나, 창원시의회는 지속가능한 창원시를 위해 건강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힘쓰고 1회용품 사용 자제와 에너지 저감 등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 늘 솔선수범하며 기후위기대응 생활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12. 18.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의회 운영 위원회



10월 13일 창원시의의회(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99회 창원시의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10. 22.~ 10. 28.(7일간) 개최하기로 했다.

11월 18일 창원시의의회(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00회 창원시의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11.25.~12.18.(24일간) 개최하기로 했다.



제100회 창원시의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영명)에서는 “제3회 창원시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후 원안 가결 하였으며, 2020년도 창원시의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를 심의했다.



제100회 창원시의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으로부터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2020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안”, “창원시의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창원시의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했고, “창원시의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제99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백태현)는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위해 10월 16일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전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창원문화 복합타운 조성 사업(처분 및 기부채납), 창원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등 사업장 5개소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11월 19일 관계부서 보고와 토론 후 사업대상지의 문제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실시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9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위원장 문순규)는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3건을 심사했다.



제99회 10월 27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현안사업 검토를 위해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예정지, 창원복지재단, 마산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 등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 예정지를 방문해 창원형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계획 및 부지선정에 대해 논의했고, 창원복지재단과 서부공영주차장을 방문하여 창원시민에게 내실있는 서비스 제공과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11월 19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긴급대책 간담회를 실시했다. 11월 18일부터 창원시 집합금지 제한명령을 변경 발령하였음에도 지역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감염 재확산 차단을 위한 대책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예비심사 △‘창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9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춘덕)는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제99회 임시회 기간 중 삼국시대 유물이 대량으로 발견되어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인 진해구 석동 제2안민터널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기간 중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덕산생활폐기물매립장(3공구) 증설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담당 부서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인근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 하에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9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이천수)는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창원시 농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제99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10월 26일 동전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창원 펫-빌리지 놀이터 등 주요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 및 운영 상황에 대한 설명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또한,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100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12월 2일 월영광장 조성사업,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는지를 살폈다. 또한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 추진과 운영 상황에 대한 설명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원시의회는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산회 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진상락(내서읍, 국민의힘)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지상록(구산·진동·진북·진전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종화(의회운영위), 김종대, 박남용(기획행정위), 김인길, 김상현(경제복지여성위), 진상락, 지상록(문화환경도시위), 김태웅, 구점득(건설해양농림위) 의원 등 9명을 예결위원으로 선임했다.



김 상 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① 제98회 임시회 기간 중 ‘공공주택 단지에 주거 안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 ②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행사에 참석한 모습
- ③ 10월 21일 진해구 시의원 간담회에서 진해해양공원 운영 현황 및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
- ④ 제100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있다.





박 선 애 의원 | 국민의힘

- ① 제99회 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고 있다.
- ② 2월 MBC경남 「보물상자」에 1일 PD로 출연해 범죄피해자 권익을 위한 지원신고센터 역할을 홍보하고 있다.
- ③ 9월 3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 포럼에 토론발제자로 참여한 모습.
- ④ 10월 18일 오동동문화광장에서 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 창원시 기념행사 및 제막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 종 화 의 원 | 더불어민주당

- ① 7월 진해 독서모임 '책두레'에 참석한 모습.
- ② 4월 5일 진해 해군교회에서 급식봉사를 하고 있다.
- ③ 제99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 중이다.
- ④ 제1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창원형 0세아 전담 어린이집 설립 제언"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이 헌 순 의원 | 국민의힘

- ① 제99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창원시 출연 기관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고 있다.
- ② 제98회 임시회 기간 중 '원이·창이 6차선 대로변 전용주거 지역 문제점 해소'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 ③ 11월 1일 의창구 국민의힘 차세대 여성위원회의 북면 감수확 농촌봉사활동에 참여한 모습.
- ④ 11월 2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여성·청년의원 시정 연구회 간담회'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최영희 의원 | 정의당

- ① 제99회 임시회 기간 중 ‘필수노동자 지원과 성평등임금 공시제’에 대해 5분발언하고 있다.
- ② 8월 27일 장애인 자립지원 및 이동개선 현안점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 ③ 7월 15일 ‘고령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 조례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 ④ 11월 19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가 개최한 코로나19 대응 긴급 대책 간담회에서 관련부서와 대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2020년 연구활동 마무리



도시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경수)는 선진사례를 벤치 마킹 하고 도시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11월 16일 경상북도 포항시를 방문하여 비교견학을 실시하였다. 구룡포근대 문화역사거리는 해양드라마세트장과 진해 근대문화역사 (역사길)에, 포항크루즈는 창원연안크루즈에, 영일교 및 영일대 해상누각은 광암해수욕장 등 창원의 해안가에, 철길숲 및 불의정원은 마산 임항선 그린웨이와 진해 행암·태백동·경화동 철길의 도시공원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창원시 역사, 문화연구회(대표의원 공창섭)가 주최하고 창원 대학교 박물관(관장 이윤상)이 주관한 '창원의 가야유적 현황과 보존활용 방향' 학술대회가 의원, 관련단체, 연구자,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8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간 연구회에서 추진한 창원 지역 가야유적지의 역사적 재조명과 발굴 유적의 보존 방향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토대로, 창원지역이 가야 시대 철 생산의 중심지역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창원 지역 가야유적의 현황 조사와 각계 전문가의 연구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보존관리 계획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관광·축제마케팅 연구회(대표의원 권성현)는 11월 23일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창원시 문화관광자원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중장기 관리 방안'에서 창원시의 돌섬 등 문화관광자원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지역 사례를 비교 분석해, 주민참여 유도과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문화적·경제적 지속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여성·청년의원 시정연구회(대표의원 김우겸)는 11월 24일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 창원시의 여성일자리 현황을 분석하고 여성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향후 여성 일자리 정책을 제시했다. 여성·청년의원 시정연구회는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받은 시상금 150만원 전액을 취약계층 여성들의 일자리 지원에 사용되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10. 6. 의장단, 집행기관과 소통간담회



창원시의회는 10월 6일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99회 임시회 일정과 주요 조례 정비에 대하여 논의했다. 아울러 제99회 임시회에 앞서 집행기관과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 받는 등 소통과 협력의 자리를 마련했다.

10. 13. 아동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



창원시의회는 10월 13일 창원 그린로드 대장정에 참여한 아동대표와 함께 「아동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아동대표로부터 「통학로 개선 촉구서」를 전달받은 이치우 의원은 “어린이는 우리의 꿈과 미래이다. 배움의 터전을 향하는 통학로가 안전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며, 우리 의회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 14.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



10월 14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23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삼수, 사천시의회 의장)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경남 수해 피해지역인 창녕군, 하동군, 함천군에 대한 성금 기탁(각 지역 500만원)에 대한 결과보고와 9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27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이삼수 경남회장이 감사로 선출된 건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10. 18. 부마민주항쟁기념식 및 기념조형물 제막행사 참석



10월 18일 창원시의원들은 오동동문화광장에서 열린 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서 노창섭 부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민주영령들께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0. 19. 공공기관 지방이전 온택트 토론회 참석



이치우 의장은 10월 19일 시민홀에서 열린 공공기관 지방이전 온택트 토론회에 참석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국토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 줄 것”이라며, “시의회에서도 창원시가 중심으로 동남권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 20. 웅동아동복지센터 물품 기증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대표해 창원시의회에서는 10월 20일, 창원시 웅동지역아동센터에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다. 웅동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대용량 밥솥과 무선청소기,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간식거리로 굴 두 상자를 전달했다.

10. 21. 진해해양공원 간담회 참석



창원시의회 진해지역 의원들은 10월 21일 진해해양공원을 찾아 운영현안을 보고받고 주요시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창원시설공단으로부터 다양한 현안 사항을 듣고, 향후 수익률 개선책과 실효성 있는 정책 모색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10. 22. 제99회 임시회 개회



창원시의회는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99회 임시회를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는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조례안 등 2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10. 22. 지역명사 초청 특강



창원시의회의는 10월 22일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명남 강사를 초청, “인생, 그 즐거운 소풍”이라는 주제로 웰다잉(well-dying) 특강을 실시했다.

10. 28. 마산국화전시회 현장 방문



창원시의회의는 10월 28일 마산합포구 해양신도시 마산국화 전시회 현장을 방문,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드라이브 스루 코스의 국화 준비상황과 자동차 극장 등 행사장 준비 현장을 확인했다.

11. 2. 창원소방본부 격려 방문



창원시의의회 의장단은 제58주년 소방의 날을 기념하여 창원소방본부를 방문했다.

이치우 의장을 비롯한 창원시의의회 의장단은 소방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일 격무에 시달리는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등 소방관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11. 8. 트롯타민-C 창원가요제 참석



이치우 의장은 11월 8일 제1회 창원가요제트롯타민-C 시상식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기쁨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창원가요제가 앞으로도 계속 사랑받는 가요제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1. 10. 농촌봉사활동 실시



창원시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은 11월 10일 농촌인력 감소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단감 수확을 도왔다.

11. 12. '고맙습니다' 캠페인 동참



창원시의회 이치우 의장은 11월 12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대면노동에 종사하는 필수 노동자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11. 14. 이순신 방산전 개막식 참석



11월 1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이순신 방산전 개막식에 참석한 이치우 의장은 “창원시는 화력·기동·함정·통신 전자 분야 등 많은 주요 방산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국내 최대 방위산업의 메카이자 최상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며 “창원이 방위산업 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것”이라 말했다.

11. 14. 세계 화상 BW 폐막식 참석



11월 1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세계화상 비즈니스 위크 폐막식이 열렸다. 폐막식에서 이치우 의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경제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화상여러분과 우리 국내기업이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 받으며 산업트렌드를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1. 19. 초록우산 아동의회 의장단 방문



2020.11.19. 초록우산 아동의회 의장단, 창원시의회 의장님과 만남

이치우 의장은 11월 19일 의장실에서 「초록우산 아동의회」 의장단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초록우산 아동의회」는 지난 7월 8일 발대식을 가진 이후 시의회 견학, 의장단 선출, 상임위원회 활동 등, 아동 문제와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11. 20. KETI 스마트제조 공정혁신 데모공장 착공식 참석



이치우 의장은 11월 20일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의 일환으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허성무 창원시장과 함께 「스마트 제조 공정혁신 데모공장」 착공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에서 동남권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스마트 산단 고도화 등을 위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의 동남권지역본부 본격 출범을 격려했다.

11. 25. 제100회 본회의 개최



창원시의회는 10월 25일 제100회 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1월 18일까지 24일간의 정례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등 5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12. 10. 창원특례시 국회통과 환영 성명 발표



창원시의회는 12월 1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고 창원특례시가 확정된 것에 대해 환영문을 발표했다. 이치우 의장은 “천신만고 끝에 특례시 지정이라는 초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늘어난 행정수요와 규모에 걸맞은 구체적 특례사항들이 반영된 관계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공조를 이어 갈 것”을 약속했다.

제100회 회기 기념 행사



창원시의회는 제100회 회기를 맞아 의회1층 공감뜨락에 소망나무를 설치했다. 11월 25일 본회의에 앞서 이치우 의장을 비롯한 43명의 시의원들과 허성무 시장은 창원시의회와 창원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현 상황이 하루 빨리 극복되길 바라는 희망을 담은 소망지를 나무에 달았다.

시민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12월 18일 제100회 정례회 산회 후 전의원들은 ‘시민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가 적힌 피켓을 들고 다함께 결의를 다졌다. 이치우 의장은 “창원시의회가 100회의 회기를 지내오는 동안 갈등과 고뇌의 시간도 많았지만, 오직 창원시 발전을 위해 창원시의회는 쉬지 않고 달려왔고, 그 원동력에는 바로 시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다”라며 앞으로 다가올 100회도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 10. 12. 언론사 기고

창원경륜공단의 재도약을 기대한다.



박 남 용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창원경륜공단은 2000년 9월 1일 설립하여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 탄생한 공단은 개장 후 20년 동안 레저세 5,700억원, 교육세 2,800억원, 농특세 1,100억원 등 9,600억원의 세수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효자 공기업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공단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매출 급감과 올해 초 터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월부터 9월 17일까지 현장 경륜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경영손실이 악화돼 조직축소를 비롯한 경영내실화, 이미지 개선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을 통한 사명변경 및 사업다각화를 추진하여 인력 재배치 및 전환을 통한 심각한 경영수지 향상에도 고민하고 있다. 창원시설공단과의 중복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으나 최소화하고 시, 도와 협의를 통한 사업 영역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있다.

민간기업 같으면 벌써 문을 닫았을 것이다. 개장 이후 수익이 좋을 때 미리 예측하고 준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지난 2017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지역사회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기여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으로서 관계 공무원들과 창원시의회의 고민이 깊어가는 지점이다. 지금까지 엄청난 레저세를 받아간 경상남도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더이상 방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올해 초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힘차게 출발한 창원경륜공단이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경륜공단 폐쇄라는 극약처방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할 것이다.

게임수당과 승리수당에 의존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인 선수들의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시설 및 인건비 등 고정비에 대한 대책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절반의 책임을 지고 있고 경상남도과 창원시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조속히 요구한다.

창원경륜공단은 지역경제 침체, 사행산업의 매출하락, 코로나19로 경영위기 초래를 통한 공단의 존폐위기까지 언급되고 있는 시점이다. 공단이 새로운 비전으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베팅과 함께 사명변경이 절체절명의 선택이라 하지만 그동안의 방만한 경영과 성과급 잔치로 일관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이렇수록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동일한 오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기타경륜특별회계 재원이 3년 안에 소진될 것이므로 유관 업무 통폐합, 고액급여 슬림화, 하위직 업무 재배치에 따른 급여 조정·동결 등 진정성을 담은 자구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전 임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과 노조위원장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일 때 묵묵히 일 한 직원과 시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한글 창제에 담긴 애민정신, 행정용어 순화로 계승해야



이 우 완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지난 9일은 오백일흔네 돌 한글날이었다. 한글 창제가 지닌 의의는 매우 크고 다양하다.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자주성을 지닌 문자이며, 전 세계에서 창제 원리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문자일 뿐만 아니라 그 원리가 매우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문자라는 점 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한글은 군주의 애민정신이 담긴 문자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였다. 사대부의 힘은 문자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성들이 쉽게 익히기 어려운 한자는 사대부만의 전유물이었고, 그것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부와 권력까지 거머쥔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도 쉽게 익힐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고 했으니 사대부들의 반발이 얼마나 컸겠는가. 사대부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방해로 뚫고 한글을 만들고 반포한다는 것은 세종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몇 해 전, 안정 나씨 종종 묘역을 이장하던 중 한글 편지 2통이 발견된 일이 있었다. ‘나신결’이라는 군관이 아내에게 보낸 한글 편지였는데, 쓰인 연대가 1490년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한글이 반포되고 실용화되기까지 불과 반세기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글이 얼마나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이처럼 ‘누구나 익히기 쉬운 문자’이기에 한글 창제에 담긴 애민정신이 더욱 빛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를 보면 ‘대다수 주민이 알기 쉬운 우리말’이 아닌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일본식 한자어나 어려운 한자어는 물론이거니와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용어도 많아서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관공서가 어려운 용어를 쓰게 되면 그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민을 공공 서비스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정보의 민주화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관공서가 오히려 정보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경계해야 한다.

먼저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각종 공문서와 홍보자료 등에 어려운 한자어와 외국어보다는 익숙한 한자어나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표기해야 한다.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문서 등에서 발견되는 어려운 용어로는 ‘주서하여(붉은색으로 기재하여)’ 나 ‘도말(삭제)’처럼 어려운 한자어뿐만 아니라 ‘불입(납입)’이나 ‘구배(경사)’와 같은 일본식 한자어도 많이 쓰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한 용어로 ‘언택트(비대면)’라는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언택트(untact)라는 단어는 영어사전에도 나오지 않으며, 컨택트리스(contactless)가 바른 표현이라고 하니 우리 관공서는 출처도 불분명한 외계어까지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행사의 제목과 공공기관의 명칭 등에 자주 등장하는 외국어는 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대체할 우리말이 없어 이미 널리 쓰이게 된 외래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팩토리’, ‘마스터플랜’, ‘북페스타’,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외국어를 행정에서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대다수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사용함에 편안케 하고자’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계승하는 첫발은 행정용어의 순화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20. 10. 14. 언론사 기고

이 많은 쓰레기, 어떻게 할까



전 홍 표 의원 | 건설해양농림위원회

2018년 4월 중국에서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폐플라스틱, 폐지 등 24개 재활용품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플라스틱 대란이 발생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배달 포장재와 일회용품 쓰레기가 크게 늘고 있다. 4인 가구가 사는 우리집도 매번 분리수거를 하거나 쓰레기를 배출하러 나갈 때면 확실히 쓰레기 배출량이 늘었다는 것을 느낀다.

인구 증가와 인구의 도시 집중, 이에 따른 도시의 변화와 배달, 택배 문화의 정착 등은 생활 속에서 쓰레기를 끊임없이 발생시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적, 사회적 생활 형태의 변화로 배출되는 쓰레기의 성상과 양은 다종·다양화되고 있다. 더불어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쓰레기! 어떻게 할까?

쓰레기를 태워도 문제다. 매립을 해도 문제다. 다른 나라로 수출해도 문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단순히 쓰레기를 태우고, 매립하고, 수출해버리면서 우리 생활공간에서 제거해 버리는 것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 다 일까?

주거공간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은 빠른 처리를 위해서 소각장에서 태우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다이옥신 등과 같은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땅에 묻어 처리를 한다면 좁은 국토도 문제이지만 이것이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100년에서 500년이라고 한다.

우리는 택배와 배달 문화 속에서 쓰레기 발생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아오면서 무분별하게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쓰레기 최종 처리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쓰레기의 처리 차원을 넘어 발생 단계에서부터 감량화, 재활용, 중간처리, 최종처리되기까지의 모든 것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전략 차원에서 범정부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등고자비(登高自卑)의 자세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도 필요하다.

몇 가지 작지만 효과적인 실천 방법을 소개한다. 편의점이나 마트에 장보러 가기 전 △장바구니를 항상 준비 △물건 구매 시 비닐봉투 거절 △불가피하게 받은 비닐봉투 재사용 △배달음식의 수요도 줄여나가야 한다. 어쩌면 인간만을 위한 편리함이라는 중독이 코로나19라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이미 돌아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쓰레기로 부터 야기될 부메랑 이제부터 막아야 한다.



NC다이노스 통합우승



박남용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지난달 말 한국프로야구 마지막 경기를 지켜보았다. 이어서 올해 최종 성적표가 공개됐다. 물론 NC다이노스는 일찍부터 우승을 확정지은 상태다. 재미있는 사실은 신생구단으로 불리는 NC다이노스와 KT위즈가 1, 2위로 순위 맨 윗자리를 나란히 차지한 것이다. 그것도 창단 채 10년도 되지 않은 팀들이 말이다.

원년 회원인 롯데와 삼성은 나란히 7, 8위를 하며 올해도 가을야구에 초대받지 못하고 안방에서 관람해야 하는 구경꾼 신세에 머무르게 됐다. 9구단 창단을 누구보다 반대했던 롯데의 일화는 이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냉정한 프로 스포츠 세계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내실 있게 한 NC다이노스는 화수분 야구의 대명사다. 현재의 성적보다 꾸준한 지도를 통해 상비군을 만들고 2, 3군을 실력으로 승격하는 승강제와 철저한 통계와 데이터를 접목한 현대 야구의 전형적인 모습을 구현한 결과다.

그 중심에는 올림픽에서 전승하며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프로야구 최고의 덕장 김경문 초대감독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에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2011년 창단, 2013년 1군 무대 데뷔, 첫해 7위에 오르며 가능성을 보인 NC는 2014년 2년 차 막내 구단으로서 당당히 정규리그 3위라는 성적을 거두며 가을야구 무대를 밟았다. 그리고 올 시즌 정규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2018년 10위를 제외하고 꾸준히 가을야구를 즐겼다. 지금 '신생구단' NC를 약자로 부르는 이는 아무도 없다.

창원시는 창원NC파크 마산구장을 만들며 오늘의 우승에 어느 정도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시리즈를 창원에서 볼 수는 없게 되었지만, 창원시민의 염원은 한결같은 마음은 그들에게 분명히 전달될 것이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희망과 용기를 안겨준 NC다이노스가 고마울 따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개막이 늦어지며 시즌이 전체적으로 뒤로 밀렸고, 추위 때문에 11월 9일부터 열리는 플레이오프는 모두 고척 스카이돔에서 중립 경기로 치러진다. 따라서 직접 관람은 어렵지만, 온갖 정성과 마음을 담아 응원할 것이다. 2020 정규시즌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NC다이노스, 거침없이 가자, 통합우승으로 가자.

2020. 11. 10. 언론사 기고

국제양궁장 건립, 창원이 주도하자!



박 춘 덕 의원 | 문화환경도시위원장

2016 리우올림픽에서 남녀 단체전 여자 개인전과 남자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하며 전 종목 금메달을 싹쓸이한 것은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이다. 우리나라 양궁 사에 새로운 역사를 남긴 양궁 대표팀의 활약을 지켜보는 수많은 이들 중 올림픽 양궁 1호 금메달리스트 서향순이 느낀 감동은 어느 때보다 컸을 것이다.

2024년 104회 전국체육대회가 김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규격 양궁경기장은 경남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시기에 창원시는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국제규격양궁장 건립을 하자. 체전 준비를 위한 시설물 건립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창원은 국제양궁경기장 건립에 적합한 시기라 판단된다.

국제규격의 양궁장은 그 역사와 전통성을 볼 때 진해지역에 건립할 것을 주문한다. 진해가 양궁으로 세계를 평정했다. 8번이나 세계를 제패한 양궁인을 배출한 곳은 오직 진해뿐이다. 타 지자체는 올림픽 양궁대회에서 금메달 리스트가 나오면 그것을 기념하며 국제규격양궁장을 신축했다.

진해는 세계적인 양궁선수 육성 메카이다. 이용호 선수는 뉴델리 아시안게임 남자양궁 사상 최초 금메달, 박성수는 세계 최연소 서울 올림픽 남자양궁 금메달, 왕희경은 서울올림픽 여자양궁 금메달, 김남순은 시드니올림픽 여자양궁 금메달, 이순미는 1984년 제2회 아시아, 오세아니아주 여자 국제양궁대회 금메달, 전애자는 1987년 제3회 프랑스 COQ 여자 국제양궁대회 주니어부 금메달, 황은희는 1989년 제5회 프랑스 COQ 여자 국제양궁대회 금메달을 수상했다.



그동안 전국체전에서 진해지역 양궁육성학교에서 획득한 메달 수는 초등부가 금메달 20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5개 도합 45개이며 중등부는 금 21개, 은 15개, 동 10개로 총 46개다. 고등부는 금 13개, 은 10개, 동 11개로 도합 34개이며 전체를 보면 양궁육성학교에서 획득한 상위입상자는 125명에 이른다. 88서울올림픽 남, 여 양궁 금메달 리스트인 박성수, 왕희경 선수와 각종 세계대회를 석권했던 황은희, 이용호 선수 등은 진해 출신이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단체 금메달과 개인 은메달 주역인 김남순 선수도 진해여중, 진해여고에서 양궁의 기본기를 완성했다. 경북 예천에는 진호 국제양궁장과 충북 청주의 김수녕 국제양궁장이 있다. 광주의 서향순 국제양궁장 건립에서 보듯이 한 사람의 영광을 그 지역 전체의 영광과 자랑거리로 승화시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30년간 진해가 배출한 양궁 인재를 자산으로 삼아 2024년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창원국제 양궁장'을 건립해야 하는 당위성을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에게 건의하고 창원양궁이 새로이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늘은 무슨 날?



이우완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오늘은 일 년 중 같은 숫자가 네 번 겹치는 유일한 날인 11월 11일이다.

숫자 ‘1’은 ‘처음’, ‘첫째’, ‘하나’, ‘으뜸’, ‘화합’, ‘시작’ 등 등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1’이 네 번이나 겹치는 오늘은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여 기념하고 있다. 법률로 정한 기념일만 해도 세 가지나 되는데, ‘농업인의 날’, ‘보행자의 날’,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등이다.

농업인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는 법정기념일이다.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복돋우며,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농업인의 날을 정한 것이다. 십일(十一)을 합자(合字)하면 흙 토(土)자가 된다. 농업인에게 가장 친숙한 것이 흙이므로 11월 11일로 정한 것도 쉽게 이해가 된다. 정부 기관에서는 이날 가래떡을 나눠 먹는 ‘가래떡 데이’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쌀소비 촉진을 통해 조금이나마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일 것이다.

보행자의 날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기념일이다.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보행자의 날을 정했다고 한다. 11이 사람의 두 다리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왜 하필 오늘이냐는 물음에 대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늘은 올해부터 법정기념일이 된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기도 하다. 6.25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올해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이들을 유엔참전국과 함께 추모하기 위해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월 11일인 오늘 오전 11시 정각, 전몰장병들이 잠들어 있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하는 것으로 추모에 동참할 수 있다.

법률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단체나 대중에 의해 만들어진 기념일도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11월 11일을 지체장애인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직립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지체 장애인 스스로 자신을 첫 번째로 소중하게 여기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그리고, 문화예술계에서는 오늘을 가곡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데, ‘빼빼로데이’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우리 전통문화인 가곡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문화예술인들의 바람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서점운영자들은 서점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서가에 가지런히 꽂힌 책(冊)의 모양과 닮은 11월 11일을 서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해군에서는 1945년 11월 11일 해군이 처음 창설된 것을 기리기 위해 해군창설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난임가족의 날, 눈(眼)의 날, 레일데이 등 다양한 날로 기념되고 있다.

그럼 빼빼로데이는 어떤가? 법정기념일만을 인정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빼빼로데이라고 해서 뽕 이유는 없다. 이미 상당한 규모의 문화향유층에 의해 기념되고 있는 것을 부정하지는 말자. 빼빼로데이에 더 익숙한 자녀들에게 “오늘은 빼빼로데이가 아니라 〇〇〇의 날이야.” 라는 말보다는 “오늘은 〇〇〇의 날이기도 하단다.” 라는 말이 더 목적에 충실한 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의미로 기념되는 날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런 다양한 의미를 되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란다.

2020. 11. 12. 언론사 기고

지방분권과 지방 균형 발전



박남용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지방의 균형발전을 끊임없이 공약하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인구 집중화 현상은 가히 폭발적이다.

정부에서는 1차에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려 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물론, 체계화된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

서울, 경기도에 자리 잡은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지방으로 향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수행하려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반드시 지방이 중심이 돼 진행돼야 하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인구 분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다.

지방에 이전한 기관의 임직원들이 주말이면 버스 수십 대를 이용해 가족이 있는 서울로 간다는 보도는 껌데기뿐인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현실에 부딪힌다. 무늬만 이전인 것이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정주 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단적인 예로 보인다.

그러면 인구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의료, 교통 등의 기반시설이 확충돼야 할 것이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의료, 교통, 문화일 것이다.

모든 것이 서울 중심적이며 각종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새로운 일들이 서울부터 시작한다는 말이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 서울의 장점과 정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공유하면 어떨까.

필자는 이렇게 제안한다. 제일 중요한 교육과 의료의 문제다. 법인화되어 있는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국립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어 교수와 직원들이 순환 근무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들의 지식을 창원에서도 진주에서도 멀리 제주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걱정하는 의료부문도 마찬가지다. 유능한 의과대 교수들이 지방에서 순환근무를 하고 지방 국립대 교수들이 서울에서 배우고 가르치면 서울 집중화된 원정 진료도 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립대학부터 먼저 실천 하자는 것이다.



관 심



박남용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오래 전 다녔던 직장의 추억이다.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꽤 높은 건물이었다. 1층 로비는 아주 높은 천장에 몇 개의 조명이 자리하고 있었다. 바로 아래 경비실 옆에는 칸막이조차 없이 조그만 구둣방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날도 오늘과 같은 가을날로 기억한다. 부지런한 부부는 이른 아침부터 구둣방을 정비해 손님 맛을 채비에 분주하다. 지나는 직원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 습관적으로 한 등씩 소등을 하는데 하필 구둣방이 위치한 공간이었다.

구둣방 부부는 말없이 직원의 눈치만 살피며 묵묵히 구두를 닦았다. 내가 알기 전 오래전부터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러려니 하고 일했던 것이다. 하루 이틀 구두를 맡겨 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구름 많이 낀 어느 날에도 절약에 철저한 직원은 등을 소등했고 구둣방 부부는 아무런 반응 없이 구두 닦는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었다. 살며시 다가가 어둡지 않으세요? 시력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빙그레 하얀 이를 보이며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것도 복이라며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로 화답했다.

그래도 그렇지, 최소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다. 관리소장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현장 확인을 해 달라는 요청과 좋은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먹구름이 짙은 어느 날 아침 출근길이었다. 평소 보이지도 않던 구둣방이 환한 조명 아래 연신 웃고 대화하며 구두를 닦는 부부의 모습이 눈에 목격되었다. 바로 옆에는 커다란 조명이 부부의 작업 공간을 비추는 것이었다. 행복해하는 부부의 모습이 오늘과 같은 가을 아침에 더욱 그리워지고 보고 싶어진다.



작은 풀, 나무, 공기 하나에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감사하는 수많은 마음들과 함께 호흡한다. 소홀히 생각되는 많은 것들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을 마음으로 전달하고 싶다. 아니 “생각하면 행동하라” 라는 말처럼 전화 한 통해 안부를 묻고 만나고 즐기는 우리의 가을동화를 구연하자.

2020. 11. 24. 언론사 기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제 그만하십시다



구점득 의원 |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지역화폐는 대형마트가 아닌 지역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재화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229개 지자체가 서울사랑상품권, 경기지역화폐, 인천e음, 여민전, 창원의 누비전 등으로 연간 9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있다.

지역화폐 열풍의 근원지는 중앙정부에 있다. 정부는 2018년 12월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의 지역상품권·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 예산으로 사업을 벌일수 있는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지자체마다 이른바 ‘보호무역’을 하는 셈인데 재정이 투입되는 동안 시스템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전체로 보면 잃는 것도 적지 않고, 지역 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이 축소되고 단절된다면 내수시장 전반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국내 인구 규모와 국토 면적을 감안할 때 화폐와 물자는 지역 단위가 아니라 전국 단위로 돌아야 시장이 살아난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견해다.

지난 10월 ‘부울경의 새로운 도전, 동남권메가시티의 미래’라는 특집토론에서 경남도지사, 울산시장, 부산시장권한 대행이 참여해 서울·경기권에 대응하는 경제권을 만들자는데 의기투합했다.

광역교통망 설치로 생활권을 넓히는 사업이 필요하며 21개 도로망사업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마다 통합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형국으로 대구·경북은 주민 찬반 투표를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며, 광주·전남과 대전·세종·충남의 통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도 부산·경남의 통합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소지역주의는 성공할 수 없으며, 정부가 영구적으로 소비 할인쿠폰을 발행해 소비 진작을 이끈다는 것 또한 불가능한 발상으로 지역보호주의와 같은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최근 누비전을 발행하면 2~3일 내에 판매가 마감되는 상황을 누비전의 인기와 효과로 이야기한다. 과연 그럴까?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혜택 때문이다. 8%는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나머지 2%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역화폐 보조금만 9,000억원에 달한다.

일반 가정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소비의 여력이 없음에도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일부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바꿔 재래시장을 방문해 소비활동을 하는 것이 소비를 늘리기 위한 활동으로 보이는가? 한 달에 100만원을 소비하는 가계가 지역화폐 50만원을 구입했다고 소비를 150만원으로 늘렸다고 평가하는 것은 과장돼 있는 것이다. 이제 그만 하십시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박남용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해마다 이맘때면 전해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 지난달 22일 창원 의창구청에서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을 치르던 71살의 어르신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27일에는 경북 군위에서 59세 지원자가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하자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끝내 숨을 거뒀다. 21일에는 울산에서도 60세 지원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유명을 달리하는 등 10월에 치러진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에서 세 분의 희생자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산불감시원이 되면 180만원 정도의 급여, 최저임금제를 적용받으며 겨울철과 봄철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기간 7개월 남짓 근무한다. 만18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지만, 시험 응시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이며 체력시험 기준은 올 들어 전국 지자체에서 일률적으로 다소 까다로워졌다. 주 업무가 체력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일이니 만큼 나이 제한을 뒀아 한다고 일부 주장하지만 현재는 나이 제한 없이 해당 지역에 사는 만 18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한편, 산림청 관계자는 “체력시험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서 체력 검증 내용 수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연령 상한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며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권리,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법상 연령 제한은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요, 우리는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다. 나이와 상관없는 지원조건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응시자가 60대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기본적인 체력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휴대폰 활용도를 높이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숙지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며 SNS를 활용하는 등, 요즘에 맞는 정보화를 기반으로 둔 선발방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런 다음 고른 채용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배수 내에서 추천하는 방식도 제안한다.

인구절벽의 시대요, 고령화 시대에 산다. 우리사회 정책도 그보다 먼저 갈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안타까운 소식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후진적인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행정당국에 당부한다.



2020. 12. 9. 언론사 기고

포용하지 못하면 죽는다



정순욱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도시 경쟁력은 지역에 입주한 기업이나 기관, 교통 여건, 문화 시설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중에서 인구수가 중요한 요소이며, 그중에서 젊은이가 얼마나 많이 있는 도시인가? 특히, 가임여성(20~39세)의 수가 얼마큼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따라서 도시의 경쟁력을 논할 수 있다.

그만큼 인구수 문제는 도시의 경쟁력을 말하기 전에 도시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되었다.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다. 105곳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92.4%인 97곳이 인구소멸지역이다. 경남지역도 18개 시·군중에서 66.7%인 12개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포함되었다.

창원시도 2012년 인구수 110.6만(외국인14,610명 포함)을 정점으로 2019년 인구수 105만(외국인14,897명 포함)이 될 때까지 7년동안 6만명이 줄었다.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65세 노령인구는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활기를 잃어가고, 수요예측을 벗어난 주택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도심의 경쟁력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

기간산업 위주의 창원은 스마트도시, 전기차가 움직이는 미래형 도시, 신항과 연계하는 미래의 도시로 탈바꿈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제조업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힘든 만큼 일자리를 채울 사람들이 필요하다.

“벚꽃이 피는 순서로 대학 문을 닫는다”는 소문이 현실화되어 가는 지역의 인구문제는 더 이상 단일민족만을 고집하는 한계에 이른다.

다문화, 외국인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 그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문제를 고민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한다. 2015년 이후 외국인수(다문화)는 매년 지속적 감소를 하고 있다. 외국인 친화 도시가 되지 못하고, 차별화되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먼 훗날 그들의 자녀가 이 땅에서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고, 사회 역군으로 성장을 할 때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들 수가 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차별을 없애서 동등한 지역사회 일원이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미풍양속과 단결력을 이해시키는 준비와 같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신체적 차이, 정체성 형성과정의 혼란, 문화 적응 스트레스, 낯선 타지에서 부모역할, 자녀 양육, 가정폭력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

이런 문제점을 창원시의 배려 깊은 지원정책으로 공존하지 못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곳을 떠날 것이다.

우리의 자리를 스스로 채우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마저 떠나간다면 우리 도시의 경쟁력은 급속히 떨어져 인구 부족이 곧 도시소멸로 이어지는 현상에 부딪힐 것이다. 지금 고민을 할 시점이다.

창원특례시와 우공이산



김종대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우공이산(愚公移山)이란 고사가 있다. 먼 옛날 중국 복산에 살던 한 노인이 마을 앞을 가로막고 있던 큰 산을 옮겨 길을 뚫었다는 이야기다. 태형산과 왕옥산이라 불리는 이 산들은 사방 700리에 높이가 만 길이나 되었지만, 노인의 독심에 감복한 옥황상제에 의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모두 노인을 비웃었지만,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는 노인의 기개와 정성에 하늘도 감동한 것이다. 우공이산의 고사는 “뜻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그 기적이 우리 창원에서도 일어났다.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 발전을 전제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 개편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제를 보완,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1일이면 창원시민은 창원특례시의 시민이 된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창원시민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린다. 허성무 시장의 노고가 컸다. 다들 안 된다고 말할 때, 특유의 근성과 추진력은 기어이 일을 성공시키고야 말았다. ‘운동화시장’이란 그의 별명은 허명이 아니었다.

“특례시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데?”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먼저 통합 10년의 창원시민이 갖게 될 커다란 자부심이 무엇보다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법안 공포 후 구체적 시행령에서 다루어지겠지만, 국가 사무 중 상당한 자치·재정권한 이양으로 지방교부세를 확대, 국고보조금제 개편으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율, 기타 세외수입 증가 등으로 특례시의 자치재원이 연간 2,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광역시급 메가시티에 걸맞은 맞춤형 발전전략을 자주적으로 수립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복지향상과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므로 창원의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창원특례시는 우리나라의 3단계 행정체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2단계 행정구조로 단순 재편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현재 부울경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촉진할 것이고, 이는 창원특례시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창원시가 주축이 되어 앞서준다면 논의가 훨씬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극복해야 할 산도 많다. 당장 사무·재정권한 특례를 놓고 중앙정부, 광역단체와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듯하다.

허 시장의 운동화가 있고, 창원시민의 염원이 있으며, 우리 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특례시로 지정된 3개 시(수원, 고양, 용인시)와 힘을 합쳐 남은 1년 잘 준비해서 성대한 창원특례시 출범식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2020. 12. 14. 언론사 기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이우완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들이 삭제된 채 법률안이 통과된 점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특례시 조항과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조항, 지방의회에도 의원의 정책개발을 보좌할 인력을 둘 수 있게 한 조항 등이 눈에 띈다.

특례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후보 시절 창원지역 유세에서 광역시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당시는 안상수 창원시장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경남도와 많은 마찰을 빚는가 하면,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는 등 광역시 승격 추진에 따른 창원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았던 때였다. 특례시는 광역시 승격이라는 요원한 꿈을 대신할 현실성 있는 대안이었다. 이번 특례시 조항으로 창원시는 비로소 104만이라는 행정수요에 걸맞는 옷을 입게 되었다. 특례시 실현을 위해 서울과 창원을 수없이 오고 갔던 '운동화 시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창원시의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특례시 법안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여야에 따른 유불리를 떠나 집행부 견제라는 지방의회 고유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얼마 전, 어느 시의회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이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의회사무국의 해명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상황에서는 어느 지방의회를 막론하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있어서 정책보좌관은 오랜 숙원이었다. 그동안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에게는 정책개발이나 의정활동을 보좌할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비록 의원 개인 보좌관은 아닐지라도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보좌 인력을 둘 수 있게 된 것이다. 의원 정수의 2분의 1, 즉 의원 두 명당 정책보좌 인력 한 명씩을 둘 수 있다. 의원 한 명당 보좌관 및 비서관을 최대 아홉 명까지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지만, 이 만큼의 인원이 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책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도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개설하여 법정선거비용의 50%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회의원처럼 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비용의 절반을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선거비용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되었다.

오랫동안 잠겨있던 빗장이 풀리듯 21대 국회 첫해에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좋은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정책보좌 인력 확충, 그리고 지방선거 후보자의 후원회 허용 등, 상기 두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라 할 것이다. 한층 강화되는 권한과 높아진 위상에 맞게 지방의회 의원들은 스스로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창원경륜공단, 사명변경에 맞춰 새로운 활로 개척해야



김 상 찬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창원경륜공단이 지난 20년간 사용해왔던 사명을 창원레포츠파크로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한다. 한 때 호황을 누렸던 경륜·경정 위주의 사업으로 많은 지방세수를 확보하기도 했으나, 적자누적을 견디다 못해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선 것이다.

경륜·경정사업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창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경륜장도 마찬가지다. 사명변경을 통해 단순히 문패만 바꿔 단다고 해서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리모델링은 그 내부구조까지 완벽하게 개조해서 새롭게 고쳐야 한다는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장을 비롯한 전 구성원이 머리를 싸매고 고심해도 쉽게 활로를 찾아내기 어렵다. 여기에 현대 산업의 흐름은 하드웨어부분은 이미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앞으로는 더욱 더 소프트웨어 부분이 강세를 띠 수밖에 없다. 이런 시대적 현상은 기업이라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숙제이자, 숙명이다.

공단도 침체를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편승해야 살아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 외적변수는 논외로 해야 한다. 신사업을 발굴해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공기업의 특성상 민간부문과의 경쟁을 피해야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시장경제가 대면에서 비대면 위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적자공기업을 언제까지나 마냥 지켜볼 수도 없다.

그 해답은 공단 스스로 먹거리를 찾아내서 사업주체인 창원시와 경남도를 설득해야 한다. 이를테면 아름답고 기나긴 해안선을 지니고 있는 창원시와 마산 해양신도시의 특성을 살려 종합해양레포츠사업을 찾아본다든지, 경남도, 부산, 울산을 아우를 수 있는 재할 또는 레저승마 등 레포츠파크라는 새로운 사명의 장점을 활용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동시에 창원레포츠파크라는 새로운 사명에 걸맞게 경남도나 창원시에서 계획하는 새로운 레포츠사업에 대한 위·수탁 운영을 검토해보고, 자체적으로는 비대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경륜·경정의 온라인발매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스스로 새로운 블루오션분야를 개척해야 한다.

지방공기업이 아무리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위해 운영된다고 해도 더 이상 적자를 묵과하기는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창원시와 경남도는 공단과 함께 어떻게든 지속 성장이 가능한 영역을 확보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단에서 나오는 지방세수(레저세 및 지방교육세)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경남도의 협조가 더 절실할 실정이다.

공단은 한해 300~400억원의 지방세와 국세를 확충하고 있고, 지난 20년간 거의 1조원에 달하는 지방재정기여를 해왔다. 또한 유도, 사격, 볼링과 같은 비인기 종목 실업팀을 창단·운영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했다. 여러 차례 우수 지방공기업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 공단에서는 사명변경과 사업 다각화가 이뤄지면 2023년까지 경영적자를 5억원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도 많이 고단해졌다. 그런 만큼 사업주체인 자치단체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공단과 함께 고민해야하고 더불어 신사업 발굴, 온라인발매 도입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단의 살길을 찾아 나서는 안목이 절실하다.

2020. 12. 21. 언론사 기고

시민은 보이지 않는 주인인가



구 점 득 의원 |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세계대전 후 사람들은 자동차를 구매할 만큼 충분한 돈이 있었지만, 도로 건설의 속도가 자동차 생산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다.

GM은 국가안보를 위해 연방정부가 예산을 들여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했다. GM의 뜻대로 고속도로 건설은 국가적 사업이 됐다. 연방정부의 도로공학자들은 운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만 주력했을 뿐, 도로가 인근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도로 주변 마을은 철거되거나 한가운대를 관통하는 도로 때문에 반으로 나뉘어졌다.

지방 정부들의 저항은 법원에 의해 진압됐다. 고속도로 개발의 결과 수만명이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쫓겨났고, 도시의 자산 가치도 폭락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다.

필자는 창원시의원으로서 2021년도 창원시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결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사정과 서민들의 삶을 생각하면 한푼도 허투루 쓸 수 없기에, 힘든 시간이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3조 2,600억원에 달하는 창원시 예산을 하루에 심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가능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에 주안점을 뒀다. 심사과정 중 불필요하고 부적합한 예산은 수정을 요구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진해 대죽도의 경관조명사업이다. 대죽도는 진해루 앞에 보이는 작은 섬이다. 이 섬 앞에 거북선 모양의 경관조명을 설치해 365일 불빛을 보게 하겠다는 것이다.

섬 앞에는 철 구조물과 전구, 조명선들이 설치될 것이다. 해저로 전선을 연결하는 대공사로 낮에는 진해루에서 온전한 대죽도를 볼 수 없고, 밤마다 쏘아대는 불빛으로 섬 주변의 생태계는 파괴되고 동식물은 괴로워할 것이다. 시설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모되지만, 설치된 구조물이 자연재해로 훼손된다면 또다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한동안 신기하고 멋있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 빛에 가려진 대죽도의 본 모습을 그리워하는 시민이 없을지 걱정된다. 그래서 필자는 삭감을 주장했다. 어려운 시기,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청소년과 청년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줄 수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자고 했다. 하지만 예산은 집행부 요구대로 의회를 통과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일 때 가장 아름답지 않은가? 대죽도의 소나무와 바다 속 물고기에게 묻고 싶다. 밤이 어두워 불빛이 필요한지...

고속도로는 현대사회에서 '동맥'에 비유될 만큼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마을을 두 동강 내지 않을 방법은 분명 있다. 자동차를 팔기 위해 공공재를 이용했던 것처럼, 현재도 이런 일은 부지기수로 일어난다. 이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공직자가 깨어 있지 않다면, 예산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채우는데 사용되고 말 것이다.

보이지 않는 주인을 무서워해야 한다.

꽃 피는 봄보다 백신



진상락 의원 |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된 지 343일 만에 영국이 처음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앞다투어 예방접종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였음에도 매일 1,000명 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3차 대유행의 위기를 맞고 있다. 반면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한국 정부는 당초 올해 연말까지 4,400만명 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으로 보아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내년 2~3월 이후가 되어야 일부 예방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당초 정부가 목표한 분량의 백신 확보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준수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다. 전 세계는 현재 코로나19 전시 상황이며, 백신 전쟁이라 불릴 만큼 각국은 백신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K방역의 주역은 누구보다도 국민이다. 자영업자들의 뼈를 깎는 고통, 의료진들의 희생, 전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적극 협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들의 수가 속출하고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시기에 K방역만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으나 경제적인 파장이 만만치 않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차선책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한시적으로 내려진 상태이다.

결국 정부의 백신 확보가 늦어짐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은 오롯이 국민의 몫인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 버텨내야 할 실정인 셈이다.

국민들은 정말 불안하다. 심리적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활동 제약으로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인지, 언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최우선 정책으로 모든 외교 역량을 동원하여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전 국민 예방접종에 올인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방역지침에 따른 국민의 불신과 혼란은 더 커질 것이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상상하지 못할 경제 추락과 사회적 혼란이 심히 우려된다.

가끔 요란하게 올려대 가슴 쓸어내리게 했던 안전 안내 문자도 이제는 귀에 익을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올려댄다.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우리는 꽃 피는 봄보다 코로나19 백신을 간절히 기다린다. 안전하고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2020. 10. 10. 창원시보 제247호 게재

머무르고 싶은 덕산역 문화공간



김장하 의원 |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올해 5월쯤 정부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를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내가 살고 있는 동읍에는 2010년 경전선 덕산역 구간 운행이 중지됨에 따라 덕산역사가 유휴공간으로 방치되고 있었다. 평소 덕산역 개발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공모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급해졌다. 이런 나의 마음을 집행부에 전달한 결과 머무르고 싶은 덕산역 문화공간이란 사업명으로 사업 신청이 이루어졌고, 내년부터 일정부분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읍 인구는 2만 802명으로 타 농촌지역보다 노인의 비율이 낮으며 20세미만 유아 청소년과 그 보호자인 30~40세의 분포가 높은 젊은 농촌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이 서비스 기능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도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나는 덕산역을 몇 번이나 돌아보며, 이 공간이 작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정착되어 사업명처럼 누구나 방문하면 머무르고 싶고, 소통과 행복의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발 일변도로 달려왔던 산업화 시대의 도시공간은 분절과 단절이라는 부작용을 발생시켰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여러 선진국은 도시공간을 연결해 소통하며 다시 탄생하고 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재생사업들이 이와 비슷해지고 있으며 그 성과를 발휘하고 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도 도시 재생을 통해 도시를 미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과 협력의 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어시장 경매장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독일의 함부르크, 기차역을 오르세 미술관으로 재생시킨 프랑스 파리, 물류 창고를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생시킨 도쿄의 텐노즈 아일 등은 세계인이 찾는 관광명소가 다시 태어났다.

비록 작은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지만, 나는 머무르고 싶은 덕산역 문화공간이 동읍을 대표하는 주남저수지, 코스모스 축제가 열리는 무점마을, 단감테마공원, 역사유적지 다호리 등으로 연결되어 세계 속의 생태관광지로 거듭나길 희망해 본다.

다음에는 단순히 방향만을 고려하여 지어진 동읍이라는 지역명 변경도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미 동읍에는 주남저수지에 뜨는 아름다운 달을 나타내는 가월이라는 지명, 유서 깊은 고분이 위치한 다호 등 많은 아름다운 이름의 마을들이 있다. 굳이 옛 이름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뜻을 수렴하여 자연과 역사, 농업생태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현재의 동읍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멋진 이름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욕심도 내어본다.

창원시 인구 주택 일자리 정책 합동 TF팀을 구성하자



손 태 화 의원 |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국 자율통합시 1호로 당시 전국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창원시가 통합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2010년 7월 1일 통합 당시 창원시 인구는 108만1,499명이었다.

이듬해인 2011년 말 109만 1,88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기준 103만 8,101명으로 최근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

2010년 통합 당시 인구 증가율 0.9%, 이듬해인 2011년 0.16% 이후 8년간 한 번도 인구가 늘어났던 해가 없다. 2012년에 0.04%로 줄어들기 시작해 2017년에 0.65%, 2019년 0.84%로 인구 감소는 가속화되고 있다. 전월 대비 8월 한 달 동안 918명이 줄었다.

최근 경제 여건도 어렵고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삶은 더욱 고단해지고 창원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속출하고,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고 미분양 아파트는 수년째 전국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원인이야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 인구정책과 주택정책의 부재,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한다.

2014년 주민 자율 통합을 이룬 청주시도 인구 84만 4,110명으로, 통합후 세종시에 인구 유출로 보험세를 보이다가 최근 월평균 600명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청주시 새통합청사까지 신축한다는 보도를 접했다.

통합 후 세종시로 유출되던 인구가 최근 청주시로 유입이 시작됐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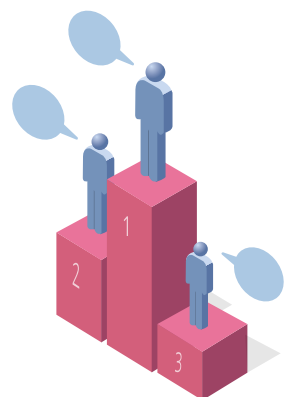
창원시 또한 인근 부산광역시와 김해시, 기타 지자체로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특히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20~30대 청년들이 전체 유출자의 40%가 넘는다고 한다.

창원시는 2018년 9월 창원형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다. 2년이 훌쩍 지났지만 인구정책은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이제부터라도 창원시는 인구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인구 유출이 계속 느는 것에 반해, 자연증가 속도는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다. 창원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10년 1만 875명, 2015년 9,526명, 2018년 7,124명, 사망자 수는 2010년 4,749명, 2015년 5,286명, 2018년 5,864명으로, 2010년의 자연증가 인구수는 6,178명에서 2018년엔 1,260명으로, 2020년 현재는 사망자 4,344명 출생자 4,294명으로 50명이 자연 감소로 돌아섰다.

창원시장은 인구 유출을 막고 자연증가 인구를 늘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창원시는 인구정책 주택정책 일자리 정책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때다.



2020. 11. 10. 창원시보 제249호 게재

늘어나는 학교 유휴공간,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활용방안 찾아야



이우완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이제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도시 개발로 구도심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학생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우선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급수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학급당 적정 인원조차 채우지 못해 학급수가 줄어들고 빈 교실이 늘어갈 것은 자명하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아파트 밀집지역의 학교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학생 수를 감당하기 위해 운동장을 줄이고 별관을 지어 교실을 확보하곤 했다.

학급수가 43학급을 초과하여 복수교감제에 따라 한 학교에 교감이 두 명 배치되는 학교도 많았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그 시기의 아이들이 졸업하면서 학급수는 계속 줄어서 운동장 가에 새로 지은 별관을 통째로 비워 둔 학교도 생겨나고 있다.

학령기 자녀를 둔 젊은 세대일수록신도시와 새 아파트를 찾아 이동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에서, 꼭 저출산 때문이 아니더라도 빈 교실의 증가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빈 교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학교 시설물이교육청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해당 학교나 교육지원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과 관련한 큰 틀을 짜야 한다. 학교가 가진 고유 목적이 있기에 학교 유휴공간의 용도 또한 그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가령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돌봄센터,작은 도서관, 마을학교, 청소년 문화공간, 주민자치센터 등은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학교의 고유 목적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설이라 하겠다.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매우 많지만,시의 예산에는 한계가 있어 그 요구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수록 예산의 효율적 편성이 중요하다.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다시 사용하거나 하나의 건물에 연관성 있는 시설이 함께 입주하는 공간의 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갈 비용을 줄이고 그 예산을 시설의 운영에 투입한다면 더 많은 생활 편의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산해양신도시에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바라며



전 홍 표 의원 |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마산항은 1899년 개항 이래 발달된 배후수송망과 창원산업단지라는 입지 이점으로 우리나라의 중심 항만으로 이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1996년 마산항은 얕은 수심과 항만시설 부족으로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뱃길이 준설되었다. 또 가포해수욕장 자리엔 가포신항이, 돌섬 앞엔 준설된 퇴적물로 인해 해양신도시가 탄생하였다.

통영에서는 국제음악제와 윤이상국제 음악콩쿠르 등 매년 세계적인 음악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창원에서도 매년 K-POP 월드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으며 본 경연에는 약 8,000여 명이 관람하고 있다.

그러나 연계콘텐츠 부족으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싸이의 강남스타일, 방탄소년단(BTS),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등 K-pop과 한국 영화는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

더욱더 놀라운 점은 싸이와 BTS, 봉준호의 성공이 미국 현지화 전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국 등 서양의 팬들까지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류 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지향적 투자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예술형 랜드마크가 창원시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마산항은 누구나 좋아하는 바다가 있고 기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시설이 충분하다.

이에 마산해양신도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 기반 랜드마크인 국립현대미술관 유치공간으로 적합할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이 아름다운 마산해양신도시에 건립된다면 스페인의 공업도시 빌바오가 구겐하임미술관을 통해 문화산업 육성기반의 부흥을 이루어낸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창원에도 전국적인 문화 향유 기반이 구축될 것이며 나아가 지역문화의 분권도 실현될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은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 문화시설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미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며 남부권 지역의 미술 인구 저변 확대와 지역민의 균등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산해양신도시에 유치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2020. 12. 10. 창원시보 제251호 게재

초선의원의 약속 II



김상현 의원 |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지난 2019년 4월 10일자 창원시보211호에 게재됐던 기고문 초선의원의 약속 I 에 이어서 다시 한번 초선의원의 다짐을 약속한다.

기초의원으로서 선출되어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한 지 2년여 시간이 흘렀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해 소외된 이웃이 없는 동네를 만들고자 기초의원에도 도전했고 전통적인 보수 지역에, 연고도 없었지만 당당히 선출됐다.

혹자는 말한다. 바람이 불어서 됐다고... 또한 아들 다섯을 키운다는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지 않았나 싶다. 모두 맞는 말이다. 하지만 하루 3만 보 이상을 걸으며 일일이 주민들을 만났고, 그 민의를 받들어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공부하는 기초의원으로서 약속을 지키며 전반기 의정활동에 매진했다.

처음에는 초선의원으로서 마치 연예인처럼 여러 곳을 다니며 얼굴 알리기에 바빴다. 동 주민자치회의, 통장회의 등 크고 작은 모임과 회의에 참석해 민원을 받았고, 창원시와 협의하며 처리했다. 또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전통시장, 일자리, 스마트산업, 여성, 청소년, 취약계층, 보건 등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많은 조례를 심의하고 새로운 조례 제정에 힘써 왔다. 창원시의 불합리한 업무와 예산 낭비 사업을 감사하고 개선했다. 가끔 동네 어르신들은 시의원 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나름대로 해명을 해보지만 잘 통하지 않는다.

동네 민원 해결뿐만 아니라 기초의원으로서 할 일이 많다.

현재 창원시는 코로나19 방역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투트랙(two-track)전략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애쓰고 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유치, 화상회의를 통한 무역, 방위산업전 등을 개최해 기업 유치와 수출 증대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창원시 예산의 절반 이상을 다루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위원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창원시의 양방향 정책에 일조하여 시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또한 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저하에 따른 인구증가 대책 하나로 다른 도시 인구 유출 방지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경제 상황으로 인한 사업장이전, 인프라가 더 나은 대도시 선호 등의 이유가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창원시 인구증가와 고령화 문제에도 꾸준히 관심을가져 조례와 시책 발굴에 힘쓰는 등 소관 위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더불어 초선의원의 약속을 잘 지켰는지 되짚어보고 반성도 하며 두 번째 약속하고자 한다.

주민을 위한, 주민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창원시 의원이 되겠다 라고... 또한 다섯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의원이 될 것을 다짐해 본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명언



공 창 섭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어떻게 놀라운 수많은 업적을 해낼 수 있었지요?” 라는 언론사 기자의 질문에 “나는 날마다 수백 번씩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답변한 사람은 바로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며 위대한 천재 과학자인 알베르트아인슈타인이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명언들은 수없이 많지만, 대표적인 명언 몇 가지 소개한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증세다 △나약한 태도는 성격도 나약하게 만든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지혜는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평생 노력해서 얻는 것이다 △성공(A)은 $A=XYZ$ 다. X=일, Y=놀이, Z=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한번도 실수를 해보지 않는 사람은 한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무엇을 받을 수 있나?’ 보다 ‘무엇을 주는가?’ 에 한 사람의 가치가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없는 말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이다. △성공한 사람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돼라 등이다.

천재인 아인슈타인의 성공 비결은 특별하지 않다. 감사하며 산 것이 그가 인생 말년에 고백한 성공 비결이다.

시대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진 아인슈타인, 그의 일기장엔 매일 하루에 100번 이상 다른 사람이 해놓은 작업에 감사했다고 적혀 있다.

천재인 그는 하루에 수백 번씩 감사했고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 동물들한테도 감사했다고 한다.

천재가 아닌 나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8만6,400초를 선물로 주셨다.

나는 이 중 몇 초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가? 미국인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26%나 사용한다고 한다.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말해보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봉림동주민을 위해 사랑의 김장하기를 준비하는 봉림동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이 행사를 후원해주시는 창원미래신탁 김장환 이사장님과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묵묵히 후원해주신 사림성당 사목회장님과 성당 가족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장하기를 도와주신 봉림동장님과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지면을 통해 감사드릴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2021년도 회기 운영 일정

월별	회 별	회 기	주 요 처 리 안 건	비 고
1월	제101회 (임시회)	1. 18.(월) ~ 1. 19.(화) (2일간)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3월	제102회 (임시회)	3. 8.(월) ~ 3. 18.(목) (11일간)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 시정질문 • 행정사무감사 사전준비 (시기, 계획) ※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일 3. 18.(목)
4월	제103회 (임시회)	4. 21.(수) ~ 4. 28.(수) (8일간)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진해군항제 4. 1.(목)~4. 10.(토)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4. 5.(월)~4. 24.(토)
6월	제104회 (제1차 정례회)	6. 7.(월) ~ 6. 30.(수) (24일간)	• 행정사무감사 • 2020회계연도 결산, 기금,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 시정질문	대마도의 날 기념일 : 6. 19.(토)
7월	제105회 (임시회)	7.15.(목) ~ 7.22.(목) (8일간)	•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창원시민의 날 기념식 7. 1.(목)
8월	하 계 휴 가			
9월	제106회 (임시회)	9. 6.(월) ~ 9. 15.(수) (10일간)	•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 • 시정질문	추석연휴 9. 19.(일)~9. 22.(수)
10월	제107회 (임시회)	10. 21.(목) ~ 10. 27.(수) (7일간)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마산국화축제 10. 23.(토)~11. 7.(일)
11월 ~ 12월	제108회 (제2차 정례회)	11. 25.(목) ~ 12. 20.(월) (26일간)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 2022년도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 시정질문	

※ 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 원 의 회 소 식

<http://council.changwon.go.kr>